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

: 또래관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대 웅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

: 또래관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대 웅

김대웅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또래관계와 자기노출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 그리고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노출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외로움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 514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격, 또래관계, 자기노출, 외로움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4.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 검정,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중기 아동의 세 명 중 한 명은 중간 이상의 외로움을 느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중간 이상의 집단관계 외로움을 느꼈으며, 네 명 중 한 명은 중간 이상의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꼈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 외롭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아동보다 더 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유연성이 낮은 아동이 더 외로운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학령 중기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은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과 선형 관계가 있었으며, 또래 수용도와 비선형 관계가 있었다. 또래 수용도가 낮고, 친한 친구 수가 적으며,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집단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학령 중기 아동의 양자관계 외로움은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과 비선형 관계가 있었다. 또래 수용도가 낮고,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과 중간인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은 유사하였다.

셋째,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 꾸밈형, 소극형으로 구분되었다. 솔직형 아동은 자기노출 개방성이 다소 높고, 풍부성, 정확성, 긍정성이 중간인 특징이 있었다. 꾸밈형 아동은 긍정성이 높고,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이 중간인 특징이 있었다. 소극형 아동은 풍부성, 개방성이 낮고, 정확성은 중간이며, 긍정성이 다소 높은 특징이 있었다. 소극형 아동은 다른 두 유형의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꾸밈형 아동은 다른 두 유형의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는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은 꾸밈형 아동과 소극형 아동에게 나타났지만, 솔직형 아동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은 세 유형에게 모두 나타났지만, 연관 정도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 및 비선형 관계를 밝혔다. 또한,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이 솔직형, 꾸밈형, 소극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노출 유

형에 따른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를 밝혔다. 이 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낮고,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만이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 경감을 위하여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 자기노출
학 번 : 2018-30893

목 차

Ⅰ.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9
1. 아동의 외로움 ····· 9
1) 외로움의 정의 ····· 9
2)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 12
2. 또래관계와 외로움 ····· 14
1)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 14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 ····· 15
3. 자기노출과 외로움 ····· 20
1) 자기노출의 다면성 ····· 20
2) 자기노출 유형의 구분 ····· 24
3)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 ····· 25
4. 또래관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 ····· 29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30
1. 연구문제 ····· 30
2. 용어의 정의 ····· 32
1) 외로움 ····· 32
2) 또래관계 ····· 33
3) 자기노출 ····· 34

Ⅳ. 연구방법 및 절차 ····· 35
1. 연구 참여자 ····· 35
2. 연구 도구 ····· 37
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 37
2) 또래관계 ····· 38
3) 자기노출 ····· 40
4) 통제 변수 ····· 41
3. 연구 절차 ····· 42
1) 예비조사 ····· 42
2) 본조사 ····· 44
4. 자료 분석 ····· 45

Ⅴ. 결과 및 해석 ····· 47
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 ····· 47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 ····· 51
1)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상관관계 ····· 51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 ····· 52
3)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 54
3. 자기노출 유형과 외로움의 관계 ····· 57
1) 자기노출 유형의 개수 ····· 57
2)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 58
3)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 ····· 61
4.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 63
1)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 63
2)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 66

Ⅵ. 결론 및 제언 ····· 72
1. 결론 및 논의 ····· 72
2. 의의 및 제언 ····· 80

참고문헌 ····· 83
부록 ····· 101
Abstract ····· 115

표 목 차

<표 Ⅳ-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6
<표 Ⅴ-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 ···· 48
<표 Ⅴ-2> 아동의 성별, 양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 ···· 49
<표 Ⅴ-3> 아동의 성격과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상관관계 ····· 49
<표 Ⅴ-4>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상관관계 ····· 51
<표 Ⅴ-5>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 ····· 52
<표 Ⅴ-6> 또래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 ····· 53
<표 Ⅴ-7>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 54
<표 Ⅴ-8>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 55
<표 Ⅴ-9> 유형 개수별 모형적합도 지수 ····· 58
<표 Ⅴ-10>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 59
<표 Ⅴ-11>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 ····· 61
<표 Ⅴ-12>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A) ····· 65
<표 Ⅴ-13>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B) ····· 68
<표 Ⅴ-14>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B) ····· 70

그 림 목 차

[그림 Ⅴ-1] 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의 분포 …… 48
[그림 Ⅴ-2]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 60
[그림 Ⅴ-3]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 산점도 …… 64
[그림 Ⅴ-4]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 산점도 …… 66
[그림 Ⅴ-5]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 산점도 …… 69

부 록 목 차

<부록 1> 설문 문항 …… 102
<부록 2>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07
<부록 3> 유형별 대면, 비대면 자기노출의 특성 …… 110
<부록 4> 공분산분석 결과 …… 111
<부록 5> 모형 4, 모형 5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13

Ⅰ. 문제제기

누구나 때때로 외롭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아동도 역시 그러하다.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의 발현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외로움과 함께한다. 어떠한 아동이 외로운지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외로운 아동은 과거보다 많아졌다(Lyyra et al., 2018). 아동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Lempinen et al., 2018),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다(Cox, 2022; Twenge et al., 2019). 외로움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Diamond & Lee, 2011; Harris et al., 2013; Lyyra et al., 2018).

아동기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외로운 아동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외로울 수 있으며, 더 우울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Hutten et al., 2021; Qualter et al., 2010).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로움을 연구하는 것의 의의를 보여준다.

외로움은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관계의 부족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과 다른 개념이다(Perlman & Peplau, 1981). 이는 아동의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맺기의 빈도나 길이가 아닌 인식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외로움은 모든 사회적 욕구의 결핍이 아닌 특정 사회적 욕구의 결핍으로 유발된다. 사회적 욕구 접근(social need approach) 이론가들은 소속감 욕구나 친밀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았으며, 두 욕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느끼는 외로움이 구분되는 정서라고 보았다(Shaver & Buhrmester, 1983; Weiss, 1973). 이는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볼 때, 소속감 욕구와 친밀감 욕구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외로움에 관한

종단연구는 외로움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지, 각 유형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점이 언제인지 관심을 가졌다(Eccles et al., 2020; Harris et al., 2013; Schinka et al., 2013). 8세부터 11세까지 외로움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동을 두 유형, 외로움을 낮게 느끼는 유형과 어느 정도 느끼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후자의 아동은 9.5세경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제시하였다(Harris et al., 2013). 10세부터 13세까지 외로움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모든 유형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12세 때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고 밝혔으며, 10세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과 13세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존재함을 밝혔다(Eccles et al., 2020). 즉, 선행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9~10세경, 즉 학령 중기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 및 사회적 욕구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9~10세 경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그 중심이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기 시작한다(Akay, 2015). 이에 따라 또래는 점차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자리 잡는다(Nickerson & Nagle, 2004). 예를 들어, 아동은 또래와 친구를 구분하고, 친한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Berndt & Perry, 1990; Rubin et al., 2006). 학령 중기 아동은 이전처럼 구체적 활동, 예컨대 자주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만으로는 욕구의 충족을 느끼지 못하며, 친한 친구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다수의 또래에게 호감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집단 내 구성원으로 소속되고자 한다(Gifford-Smith & Brownell, 2003).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유아의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또래 집단에 속하고 각 구성원 간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유아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Parkhurst & Hopmeyer, 1999). 또래 집단 내 소속감에 관한 욕구는 아동이 고학년에 접어듦에 따라 발현되는 발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학령 중기 아동의 발달적 특징, 즉 또래관계

에 대한 새로운 욕구의 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욕구의 부족을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해 아동은 외로울 수 있다.

Hoza 등(2000)은 외로움을 두 영역으로 구분한 사회적 욕구 이론가들의 논의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들은 아동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속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집단관계 외로움을 느끼며, 친구 관계에서 친밀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낀다고 제안하였다(Hoza et al., 2000). 그리고 Salo 등(2019)은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밝혔다. 요약하면, 이 시기 아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의 발현, 또래 집단 내 소속감 및 친구와의 친밀감을 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전자의 아동은 집단관계 외로움, 후자의 아동은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Bukowski와 Hoza(1989)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 경험이 다르다고 제안하였다. Kingery 등(2011)은 이러한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 종류를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의 질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관계가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세 종류의 또래관계를 하나의 회귀식에 포함했을 때에도 각각의 또래관계와 아동의 외로움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Kingery, 2011). 이후 다른 연구에서도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의 질이 각각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래 수용도가 낮고, 친구의 수가 적으며, 단짝관계의 질이 부정적인 아동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Lodder et al., 2017; Vanhalst et al., 2014). 이상의 논의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의 질이 각각 외로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아동의 외로움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기에, 세 종류의 또래관계와 두 외로움의 관계가 각

각 어떠한지는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의 질과 외로움의 연관성은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Hoza et al., 2000; Salo, 2019), 또래관계와 두 외로움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 Hayes 등(2022)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개연성을 높인다. 이들은 성인의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연관성이 두 외로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Hayes et al., 2022).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외로움을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또래관계와 두 외로움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 그리고 또래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또래관계가 좋은 아동이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Asher & Paquette; 2003 Kingery, 2011; Lodder et al., 2017; Vanhalst et al., 2014).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Ferguson & Ryan, 2019; Maresky et al., 2021). 즉, 여러 또래로부터 많은 호감을 얻는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더 외로울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erguson과 Ryan(2019)은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Maresky 등(2021)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이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두 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현상을 보고함으로써, 또래관계가 좋은 아동이 더 외로울 수 있음을 밝혔다는 함의가 있다. 다만, 그러한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집단관계에 의한 것인지, 혹은 양자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여전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친구의 수 및 단짝관계의 질과 외로움의 관계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Kingery, 2011; Lodder et al., 2017; Vanhalst et al., 2014). 즉, 친구의 수나 단짝관계의 질과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다. 외로운 아동의 또래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외로움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 질과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누군가는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에 관하여 자기노출을 강조한 이론가들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외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ogers, 1970; Sermat & Smyth, 1973; Strokes, 1987). 예를 들어, Rogers(1970)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더욱 드러내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여겼다. 유사한 맥락에서 Sermat과 Smyth(1973)는 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할 때 외로움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긴밀한 관계를 시사한다.

자기노출이란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Cozby, 1973). Cozby(1973)의 정의에서 드러나듯 자기노출은 정보를 드러내는 광범위한 행위를 한데 묶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강조하였다(Cozby, 1973; Gilbert & Whiteneck, 1976; Wheeless & Grotz, 1976). 다면성(multidimensionality)이란 구성체(construct)가 하나의 특성에 의하여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APA Dictionary of Psychology, 2022). 이는 아동의 자기노출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노출의 여러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증연구는 자기노출의 증가가 외로움의 경감과 관련 있다고 밝히면서도(Chen

et al., 2021; Matsushima & Shiomi, 2001; Wei et al., 2005),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자기노출의 여러 특성에 따라 아동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변수 중심 접근보다 개인 중심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Bartholomew et al., 2011).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이 복수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아동의 자기노출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이 어떠한 자기노출 특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Sterba, 2013). 이 방법은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이 보이는 자기노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함의가 있다.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기노출의 어떠한 특성을 지표(indicator)로 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노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노출의 다면성에 관하여 동의하면서도, 각각의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자기노출 특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로움 경감을 위한 자기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Rogers(1970)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정도에 주목하였다. 이는 자기노출의 풍부성과 정확성을 강조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과 또래집단의 규범을 준수하길 요구받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Greener, 1999; Selman, 1980),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행동한다(Eisenberg & Febes, 1998; Hubbard & Coie, 1994).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또래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욕구의 부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Sermat과 Smyth(1973)은 Rogers(1970)와 마찬가지로 외로움 경감을 위한 자기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들이 주목한 자기노출의 특성

은 Rogers(1970)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중요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공유할 기회가 부족할 때, 외로움이 유발된다고 여겼다(Sermat & Smyth, 1973). 같은 맥락에서 Cozby(1973)는 자기노출의 정도가 풍부한 정도와 함께, 그 내용의 개인적 혹은 사적인 정도를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두 선행연구는 자기노출의 개방성을 강조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자기노출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한 Gilbert와 Whiteneck(1976)는 전술한 두 연구에서 강조한 개방성과 더불어, 긍정성을 자기노출의 핵심적 특성으로 여겼다. 이는 사적인 정보를 얼마나 노출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긍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또래에게 전달하는 부정적 정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며(Rose 2002), 이는 외로움 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사적인 정보와 부정적 정보에 관한 노출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Bruno et al., 2009; Wei et al., 2005).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특성들,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지표로 하여,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더 외로울 수 있음을 보였다(Ferguson & Ryan, 2019; Maresky et al., 2021).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관계 맺기의 부재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Maresky et al., 2021). 한편, 자기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기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ogers, 1970; Sermat & Smyth; 197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또래 수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으면서

외롭지 않은 아동과 자신을 노출하는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기노출에 관한 실증연구(Howe et al., 2000; Wei et al., 2005)는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관계가 자기노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 자기노출이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진 이유는 개인이 자기노출을 수반한 사회적 관계 맺기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Derlega & Margulis, 1982). 이는 자기노출이 외로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관계가 자기노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또래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또래관계와 외로움,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뒤에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양상을 살펴보고, 두 외로움이 또래관계 및 자기노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단짝관계 질과 외로움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존재하는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그러한 연관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또래관계와 자기노출의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에게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는 함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 또래관계, 자기노출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정의하기 위하여 각 이론적 관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외로움과 관련 있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기노출의 다면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검토하고, 외로움과 자기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한다.

1. 아동의 외로움

이 절에서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령 중기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을 고찰한다.

1) 외로움의 정의

1970년대 이후 외로움에 대한 실증적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Marangoni & Ickes, 1989), 여전히 외로움이 무엇인지에 관해 명료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외로움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답변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어떻게 외로움을 정의할지 규정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외로움이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다(국립국어원, 2022).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 있는 ‘홀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 있는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외로움은 '홀로 되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다른 개념이다. 누군가는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 사회적 고립이 현상에 관한 묘사라면, 외로움은 보다 주관적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Perlman과 Peplau(1981)는 외로움을 개인의 욕구와 실제 실현 정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했다. 외로움에 관한 인지적 접근방식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안한 의의가 있다(Marangoni & Ickes, 1989). 인지적 요인은 현상과 이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연결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홀로 되었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외로울 수 있다(Jones et al., 1981; Russell et al., 2012). 따라서 이 연구는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구분하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롯되는 정서로 정의하고자 한다.

외로움은 모든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은 외로움의 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개념적으로 구분한 데 의의가 있다(Perlman & Peplau, 1981).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Shaver & Buhrmester, 1983; Stein & Tuval-Mashiach, 2015).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외로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며, 그중에서 무엇이 부족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외로움이 다양한 사회적 욕구 중 일부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라면, 외로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한다.

Weiss(1973)는 외로움이 친밀한 애착 관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소속감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Shaver와 Buhrmester(1983)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서 심리적 친밀감

(psychological intimacy)이 충족될 때, 혹은 통합된 참여(integrated involvement)가 이루어질 때 외로움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속감과 친밀감이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욕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아동의 소속감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과 친밀감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모든 사회적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같은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외로움을 유발하는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느끼는 외로움은 서로 구분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Marangoni & Ickes, 1989).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서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분되는 영역임을 밝혔다(이기쁨, 민하영, 2020; Maes et al., 2015). 이와 같은 논의는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적 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보편적으로 외로운지를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인지적 접근은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구분하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와 이에 관한 인식을 강조한다. 사회적 욕구 접근은 외로움을 유발하는 사회적 욕구를 소속감과 친밀감으로 구분한다. 선행연구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의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소속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길 때 느끼는 외로움과 친밀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길 때 느끼는 외로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속감과 친밀감 욕구의 대상을 또래관계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어떠한 아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이는 아동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는 외로운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은 외로움으로 인하여 수면 질의 저하,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 우울한 정도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김진경, 2012; Harris et al., 2013; Lyyra et al., 2018). 또한, 외로운 아동은 신체, 정서 영역과 함께, 집행 기능과 같이 인지 영역의 발달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Diamond & Lee, 2011).

아동기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은 장기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9세 때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겪은 아동은 13세 때 다른 청소년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었으며, 아동기에 외로움을 적게 겪은 사람보다 성인기에 높은 우울, 높은 불안, 낮은 자존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Hutten et al., 2021). 또한, 5세 때와 9세 때 외로움이 높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Qualter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외로움과 건강한 발달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성인, 청소년, 아동 모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는 외로움을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Cassidy & Asher, 1992). 이는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상술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Asher & Paquette, 2003). 즉 유아는 외로움을 이해하고 느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이해와 정서에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혼재되어 있다(Galanaki, 2004; Qualter & Munn, 2002). 아동은 학령기에 들어서며 점차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약 61%가 홀로되는 것과 외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Galanaki, 2004).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학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Perlman & Peplau, 1981).

외로움에 관한 종단연구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령 중기가 외로움의 변화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밝혔다. 먼저, 이 시기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의 경향이 바뀌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Qualter 등(2013)은 아동의 외로움을 7세부터 17세까지 살펴보았는데, 9~11세를 기점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과 적게 느끼는 아동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고 제시하였다(Qualter et al., 2013).

또한, 일부 선행연구는 아동이 학령 중기에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보였다. 예를 들어, 8-11세 아동의 외로움 변화를 살펴본 Harris 등(2013)은 아동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외로움이 낮게 유지되는 집단은 8~11세 사이에 모두 외로움을 적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은 일정 시점에 외로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겪는 시기는 9~10세 사이라고 밝혔다(Harris et al., 2013). 10-13세 아동의 외로움 변화를 살펴본 Eccles 등(2020)도 학령 중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동의 약 절반이 10세 때 가장 많이 외롭다고 밝혔다(Eccles et al., 2020).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령 중기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아동은 학령 초기를 거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 간 차이는 학령 중기를 거치며 더욱 증가하며, 일부 아동은 이 시기에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 외로움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외로움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령 중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의 의의를 보여준다.

2. 또래관계와 외로움

이 절에서는 아동이 학령기에 맺는 또래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1)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학령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또래관계에 관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를 경험한다. 우정의 발달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8, 9세 경 또래관계에서 우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해하기 시작하여(Akay, 2015),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와 친구의 구분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Allen & Land, 1999; Hartup, 1990). 유아기 혹은 초기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놀이를 공유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Gifford-Smith & Brownell, 2003). 이후,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우정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구체적 활동, 예컨대 자주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또래와 맺는 공통된 가치의 공유나 정서적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Berndt & Perry, 1990; Rubin et al., 2006).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며, 공통점을 찾는 것을 추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Allen & Land, 1999). 이에 따라 아동은 또래와 친구를 구분하기 시작하며, 여러 친구 중 소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또래와 친구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친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의미 또한 변화한다. 친한 친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믿음만으로는 또래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Feldman, 2017; Qualter et al., 2015). 아동은 집단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은 유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또래 집단에 속하고 각 구성원 간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유아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Parkhurst & Hopmeyer, 1999).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동은 또래 집단 내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걱정한다. 다수의 또래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지며(Cillessen & Bellmore, 2004), 또래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다수의 또래로부터 얻는 호감, 선호, 인기의 정도가 중요해지는 것을 보여준다(Asher & Paquette, 2003).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또래 집단과 친구 관계를 각각 살펴보는 것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

또래관계는 아동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긍정적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로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김진경, 한유진, 2008; 정유진, 김광웅, 2006; Asher & Paquette, 2003). 그런데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집단 내 또래 수용도(peer acceptance)가 높고, 친구의 수(friendship quantity)가 많으며, 단짝관계의 질(best friendship quality)이 좋은 것을 긍정적 또래관계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으며(Kingery et al., 2011; Lodder et al., 2017; Vanhalst et al., 2014),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것들이 외로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Asher & Paquette, 2003; Nangle et al., 2003; Weeks & Asher, 2012; Schwartz-Mette et al., 2020).

친구가 적은 아동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친

구가 없는 아동이 친구가 많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이러한 경향은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과 높은 아동에게서 모두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Parker & Asher, 1993; Renshaw & Brown, 1993). Nangle 등(2003)은 3~6학년 아동의 우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의 질과 함께 관계의 양을 중요한 축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는 것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친구의 수와 함께, 단짝관계의 질은 아동의 중요한 또래관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단짝과 관계의 질이 좋은 아동이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을 밝혔다(김주연 등, 2012; Brendgen et al., 2010; Parker & Asher, 1993). 즉, 단짝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아동은 사회적 욕구의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Parker와 Asher(1993)는 성별과 또래 수용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단짝관계 질을 보여주는 여섯 개의 항목과 외로움의 관계가 각각 유의하다고 밝혔다(Parker & Asher, 1993). 이러한 선행연구는 단짝관계 질이 부정적인 아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친구의 수와 단짝관계 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친구의 수와 단짝관계의 질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과 단짝관계의 질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으나(Shin, 2007), 대부분의 연구는 중간(Hoza et al., 2000; Vanhalst et al., 2014), 혹은 낮은 연관성을 보고하였다(Kingery et al., 2011; Lodder et al., 2017). 이는 아동의 사회적 욕구가 친구의 수나 단짝관계 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만, 다수의 또래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동은 외로울 수 있다. 또래 수용도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다(Asher & Paquette, 2003). 또래 수용도는 여러 또래가 아동을 좋아하는 정도, 혹은 이에 관한 아동의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Hymel et al., 2011). 여러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낮은 학

령기 아동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도현심, 1996; Kingery et al., 2011; Mouratidis & Sideridis, 2009; Shin, 2007). 다수 또래의 호감을 얻는 것은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러 또래가 호감을 느끼는 아동은 그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더 얻으며, 이는 다시 그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을 배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Mouratidis & Sideridis, 2009; Nangle et al., 2003).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수의 또래로부터 호감을 얻는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러 또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여러 또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판단은 또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Lodder et al., 2017; Nangle et al., 2003). 예를 들어, 자신은 그저 같은 반 또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여길 수 있으며,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두 개념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또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또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구분이 명확해진다고 제시하였다(Cillessen, 2009; Hymel et al., 2011). 또래 선호와 이에 관한 인식을 동시에 고려한 청소년 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 선호에 대한 인식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또래의 선호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Vanhalst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술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단짝관계의 질이 부정적이고, 친한 친구의 수가 적으며,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이 외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두 편의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겪는 외로움에 주목하였다. Ferguson과 Ryan(2019)은 인기가 매우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의 외로움과 또래 수용도의 관계

를 살펴보았으며, 두 변인 간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또래의 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은 점차 낮아졌지만, 또래의 호감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즉 또래 수용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erguson & Ryan, 2019). Maresky 등(2021)은 Ferguson과 Ryan(2019)의 논의가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또래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은 오히려 호감도가 중간인 아동보다 더 외롭다고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오히려 중간인 아동보다 더 외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인기 아동이 의미 있는 또래관계를 맺을 기회를 더 적게 얻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Maresky 등(2021)은 또래와 관계를 맺는 것은 학령 중기 아동의 중요한 과업이지만, 인기 아동은 성취감을 주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Ferguson과 Ryan(2019)은 이 시기 아동의 인기는 신체적 매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로 인하여 인기 아동이 친밀한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친밀한 우정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선행연구의 해석은 아동의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관계 자체가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도 외로울 수 있다면,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들의 또래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다. 외로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Ferguson & Ryan, 2019; Maresky et al., 2021)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Salo et al., 2019; Weiss, 1973), 다수의 또래로부터 선호를 받는 아동이 두 외로움을 모두 더 많이 느끼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아동의 외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욕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그리고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친한 친구의 수 혹은 단짝관계의 질과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로운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또래관계는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낮고, 친한 친구의 수가 적으며, 단짝관계의 질이 부정적인 아동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도 외로울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과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와 비선형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자기노출과 외로움

이 절에서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자기노출과 아동의 외로움에 관하여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1) 자기노출의 다면성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스스로에 관한 정보, 즉 경험, 생각, 감정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등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적 표현, 그리고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자기노출의 한 방법일 수 있다(Al-Saggaf & Nielsen, 2014; Shapiro, 1968; Wheeless & Grotz, 1976). 이 연구는 자기노출을 경험, 생각, 감정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체로 보고자 한다.

자기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강조하였다(Cozby, 1973; Gilbert & Whiteneck, 1976). 그러나 각각의 연구가 강조한 자기노출 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자기노출이 다면적 특성이 있다면, 그리고 선행연구마다 강조한 자기노출의 특성이 다르다면, 각 연구에서 강조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ggins(1987)는 자기 불일치 이론(self discrepancy theory)을 통해 개인의 자아는 단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아를 실제 자아, 이상 자아, 당위 자아로 구분했다(Higgins, 1987). 실제 자아(actual-self)는 개인이 실제로 지니는 특성, 이상 자아(ideal-self)는 개인이 지니길 희망하는 특성, 당위 자아(ought-self)는 개인이 지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자아 간의 차이를 자기 불일치라 일컬었다. 예를 들어, 아동은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친구에게 이를 내색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아동은 또래에게 밝은 성격으로 보이고 싶은 이상 자아, 혹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는 감추어야 한다는

당위 자아로 인하여, 실제 자아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실제 자아를 숨기거나, 때때로 실제 자아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한다(Eisenberg & Febes, 1998; Hubbard & Coie, 1994). 자신을 드러내는 아동의 행위는 또래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Derlega & Grzelak, 1979). 학령기 아동은 자기노출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래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Buhrmester et al., 1992; Parker & Gottman, 1989). 예를 들어, 아동은 도덕적 행동을 할 때,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보일지를 함께 고려한다(Buhrmester et al., 1992). 아동이 실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감추는 것 혹은 다른 자아를 드러내는 것은 인지적 발달, 예컨대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로 인한 타인의 시선에 관한 관심과 걱정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Selman, 1980), 또래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기를 요구받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Greener, 1999).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이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 등에 관한 정보를 또래에게 얼마나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자아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고려하고자 한다. 전자는 자기노출의 풍부성, 후자는 자기노출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또래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할 때, 아동은 실제 자아를 노출할지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한다. Cozby(1973)는 자기노출의 영역을 구분하고, 노출의 정도를 하나의 축으로, 노출 정보의 사적인 정도를 다른 하나의 축으로 제안하였다(Tolstedt & Stokes, 1984). 예를 들어, 담임교사의 성별이 남성인 것과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동의 취향은 모두 아동의 실제 자아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내용이 더욱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자기노출의 풍부성이나 정확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의 노출이 자기노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Rotenberg와 Mann(1986)은 아동의 자기노출을 선호, 정서에 관한 정보 노출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노출로 구분하고, 아동이 두 노출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밝혔다(Rotenberg & Mann, 1986). 또한, 자기노출을 내면적 자아와 표면적 자아의 노출로 구분한 선행연구는 두 개념이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의 연관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Matsushima & Shiomi, 2001).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또래에게 노출할 때,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얼마나 노출하는지, 즉 자기노출의 개방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자기노출의 풍부성과 정확성에 관한 논의는 개인이 실제 자아를 얼마나 드러내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기노출의 개방성에 관한 논의는 실제 자아에 관한 정보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도와 관련이 있다. Gilbert와 Whiteneck(1976)은 더 나아가, 자기노출의 두 가지 축을 정보의 사적인 정도와 긍정적 정도로 구분하였다. 이는 실제 자아를 노출하는 내용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강조하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10세 경,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과 함께, 자신의 부정적 정보를 또래가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Ojiambo & Taylor, 2015). 그리고 관계의 유지나 개선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개인이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를 더 쉽게 노출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정보의 경우, 타인이 그러한 정보를 수용할 때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i & Toma, 2014). 침묵효과(mum effect)로 알려진 것과 같이 개인은 부정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망설이기 쉽다(Rosen & Teaser, 1972).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이 또래에게 자기노출을 할 때,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오늘날, 아동의 자기노출은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는 비대면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행위가 대면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행위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Davis, 2012; Gentina &

Chen, 2019; Nguyen et al., 2012; Towner et al., 2022). 그런데 비대면 자기노출이 대면 자기노출과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비대면 상황에서의 자기노출 개방성이 대면 상황에서의 개방성보다 더 높은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Nguyen et al., 2012; Ruppel, 201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차이는 비대면 상호작용과 대면 상호작용과의 차이가 매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차이를 동반하는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 Nguyen 등(2012)은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상대에 대한 비대면 자기노출이 지인에게 비대면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을 매체로만 구분하기에는 비대면 자기노출의 맥락이 매우 다양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Ruppel(2015)은 대면보다 비대면 상황에서 자기노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는 매체의 특성이 아닌, 익명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친구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아동의 행위, 그리고 자기노출의 특성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면과 비대면 자기노출의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Davis, 2012; Gentina & Chen, 2019; Li et al., 2021).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비대면 자기노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Davis, 2012; Valkenburg et al., 2011). 아동의 비대면 자기노출은 소셜 미디어가 아닌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며(Valkenburg et al., 2011), 따라서 아동의 비대면 자기노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의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대면 자기노출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자기노출로 측정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자기노출의 다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각각 자기노출의 다른

특성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자기 노출의 주요 특성은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의 자기노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특성을 대면과 비대면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자기노출 유형의 구분

아동의 자기노출이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아동을 유형화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에게 사적인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아동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아동은 모두 자기노출의 양이 많지만 다른 유형의 아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전체 모집단 속에서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하위집단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변수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분석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 아동에 대하여 각각의 자기노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노출 양상을 토대로 이 아동이 어떠한 유형의 자기노출 양상을 보이는지 구분 짓는 방식이다(Sterba, 2013). 개인 중심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이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각 지표 변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자기노출 정도가 유사한 아동을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Bartholomew et al., 2011).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서로 관련이 있는 자기노출의 여러 특성을 하나의 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노출의 각 특성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Knop et al., 2016), 자기노출의 특정 영역과 외로움 간 연관성은 자기노출의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zby(1973)는 자기노출의 양이 높을수록 개방성이 낮은 경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이 방법은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아동의

다양한 자기노출 영역을 각각 모형에 고려할 경우,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가 각각의 자기노출 영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모형의 해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그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대면과 비대면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통해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3)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

여러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까? Rogers(1970)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의 차이,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관계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바라보았다. 자기노출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와 상호작용은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며, 그로 인해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는 것이다(Rogers, 1970; Strokes, 1987).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노출의 중요성은 여러 이론적 논의에서도 주장되었다. Derlega와 Margulis(1982)는 외로움이 진실한 자기노출이 결핍된 의사소통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Weiss (1973)은 자기노출의 부족이 외로운 사람이 보이는 주요한 특성이라 보았다. 자기노출은 이론적으로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외로움에 관한 자기노출의 중요성은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자기노출을 적게 하는 대학생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Bruno et al., 2009; Schwab et al., 1998; Solano et al., 1982), 애착 불안이나 사회적 효능감을 통제했을 때에도 자기노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5). 청소년 대상 연구도 성인 대상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친구에게 비밀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이 높았

으며(Musetti & Carsano, 2021), 중학생의 자기노출이 낮아짐에 따라 외로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shima & Shiomi, 2001).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 선행연구는 아동의 자기노출도 외로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은 실제 자아를 얼마나 또래에게 드러낼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또래에 대한 자기노출이 학령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Buhrmester & Prager, 1995). 학령 중기 아동은 자기노출을 통한 또래 관계 맺기를 통해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Bagwell & Schmidt, 2013; Parker & Gottman, 1989). 이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아동의 자기노출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외로움에 관한 Rogers(1970)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노출과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연관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Mahon 등(2006)은 자기노출이 이론적으로는 외로움과 관련 있는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간의 결과 차이가 크다고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다섯 개의 극단적 결과를 제외하면 두 변인 간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는데,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자기노출과 외로움 간 상관관계가 -.22라 주장하였다(Mahon et al., 2006).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 재학 중인 외국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외로움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선행연구는 두 변인 간 상관계수가 -.19라고 보고하였다(Imai, 2017). 코로나 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두 변인 간 상관계수가 -.17로 낮다고 보고하였다(Chen et al., 2021). 온라인상에서의 자기노출은 외로움과 더 낮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외로움과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자기노출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Ho & Nguyen, 2022).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일부 선행연구는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강한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외로움과 친구에 대한 비밀 정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두 변인의 상관계수가 .47라 보고하였으며(Musetti & Corsano, 2021),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두 변인의 상관계수가 -.40라 제시하였다(Bruno et al., 2009).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수행된 성인 대상 연구도 두 변인 간 상관계수가 -.51로 높다고 제시하였다(Wei et al., 200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가 여전히 모호함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노출 이론가들은 자기노출의 다면성에 주목하였다. 자기노출이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가 자기노출의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를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울 것이다. 즉, 두 개의 선행연구가 각각 다른 자기노출의 영역을 살펴보았다면, 두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낮은 연관 정도를 보고한 Chen 등(2021)의 연구는 자기노출의 양을, 대학생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높은 연관 정도를 보고한 Bruno 등(2009)의 연구는 자기노출의 긍정성에 관심을 가졌다. 이 두 연구는 유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아동의 다면성을 반영한 연구 설계를 통해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이 연구는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또래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더 외로울 가능성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자기노출이 외로움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연관 정도는 선행연구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마다 자기노출의 다른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각각의 선행연구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또래관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

아동의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러한 관계 자체가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과 구분되는 개념이며(Perlman & Peplau, 1981), 자기노출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로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ogers, 1970; Strokes, 1987).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선행연구는 자기노출이 외로움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연관성이 자기노출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Karsay 등(2019)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성인의 외로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온라인을 통한 자기노출이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외로움 증가의 정도가 적다고 밝혔다. 이는 성인의 온라인 자기노출 정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과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삶의 질 감소가 자기노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Wang et al., 2018),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통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이 자기노출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배민영, 신현숙,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연관성이 자기노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노출 특성에 따라 아동을 유형화할 수 있다면,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자기노출 유형의 조절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또래 수용도가 높으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아동의 외로움, 또래관계, 자기노출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주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또래관계와 자기노출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와 비선형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다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와 외로움(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외로움과 선형 관계를 갖는가?

2-2.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외로움과 비선형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3】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과 자기노출 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3-2.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는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또래관계, 자기노출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외로움

외로움(loneliness)은 개인의 욕구와 실제 실현 정도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이다(Perlman & Peplau, 1981). 외로움은 소속감 욕구의 부족과 친밀감 욕구의 부족으로 유발될 수 있다(Weiss, 1973).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을 또래관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 집단관계 외로움

이 연구에서 집단관계 외로움(peer network loneliness)의 조작적 정의는 또래 집단관계에서 아동이 소속감 욕구가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유발되는 정서이다.

(2) 양자관계 외로움

이 연구에서 양자관계 외로움(peer dyadic loneliness)의 조작적 정의는 친구관계에서 아동이 친밀감 욕구가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유발되는 정서이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는 아동이 비슷한 나이의 대상과 맺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Kingery et al., 2011; Vanhalst et al., 2014),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또래 수용도

또래 수용도(peer acceptance)는 다수의 또래가 대상 아동에게 갖는 호감의 정도를 의미한다(Hymel et al., 2011). 이 연구는 아동의 인식으로 또래가 갖는 호감의 정도를 살펴본다(Lodder et al., 2017). 이 연구에서 또래 수용도의 조작적 정의는 또래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아동의 생각이다.

(2) 친한 친구 수

이 연구에서 친한 친구 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동이 자신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수이다.

(3) 단짝관계 질

단짝관계 질(best friendship quality)은 단짝관계가 긍정적인 정도이다. 단짝은 아동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또래를 의미한다. 관계의 질은 관계가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Berndt, 2002). 이 연구에서 단짝관계 질의 조작적 정의는 단짝관계가 보이는 긍정적 특성(신의, 갈등 해결, 도움, 어울리기)의 정도이다(Parker & Asher, 1993).

3) 자기노출

자기노출(self disclosure)은 경험, 생각, 혹은 감정 등에 관한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체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타인에 대한 아동의 대면 및 비대면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살펴본다. 아동의 비대면 자기노출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자기노출로 한정한다.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풍부성은 아동이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내용의 양이 많거나, 시간의 길이가 길고, 빈도가 잦은 정도이다. 정확성은 아동이 자신을 드러낼 때 솔직하고 진심인 정도이다. 개방성은 아동이 자신의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경험, 생각, 혹은 감정에 대하여 충분히 노출하는 정도이다. 긍정성은 아동이 평소 노출하는 긍정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보보다 많은 정도이다.

Ⅳ.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서술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No. 2208/001-006).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또래관계와 자기노출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선형 혹은 비선형 관계를 알아보고,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본인과 법정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538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514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아 253명(49.22%), 남아 261명(50.78%)이었으며,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는 아동은 434명(84.44%), 없는 아동은 80명(15.56%)이었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은 486명(94.55%), 거주하지 않는 아동은 28명(5.45%)이었다. 형제자매는 1명인 경우가 2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56.42%), 외동인 경우가 98명(19.07%), 2명인 경우가 94명(18.29%), 3명인 경우가 24명(4.67%), 4명 이상인 경우가 8명(1.56%)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사례 수	(백분율)
성별	여	253명	(49.22%)
	남	261명	(50.78%)
스마트폰 소유 여부	없음	80명	(15.56%)
	있음	434명	(84.44%)
양부모 동거 여부	함께 거주하지 않음	28명	(5.45%)
	함께 거주함	486명	(94.55%)
형제자매 수	외동	98명	(19.07%)
	형제자매 1명	290명	(56.42%)
	형제자매 2명	94명	(18.29%)
	형제자매 3명	24명	(4.67%)
	형제자매 4명 이상	8명	(1.56%)
계		514명	(100%)

2. 연구 도구

이 절에서는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 또래관계, 자기노출, 통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을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를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노출을 대면과 비대면에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으로 측정하였다.

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za 등(2000)의 척도(peer network and dyadic loneliness scale; PNDL)를 번역하고, 4점 리커트 방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eiss(1973)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또래관계와 관련 있는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측정한다. Salo 등(2019)은 이 척도가 초등학교 4-6학년 외로움 측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6문항이며, 집단관계 외로움 8문항, 양자관계 외로움 8문항이다. 집단관계 외로움 문항 예시는 '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거의 대부분 소외감을 느낀다.'이며, 양자관계 외로움 문항 예시는 '나는 나를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이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4점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은 각각 여덟 문항 응답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더 외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Cronbach의 α값은 집단관계 외로움 .81, 양자관계 외로움 .82였다.

2) 또래관계

이 연구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살펴본다.

(1) 또래 수용도[1)]

아동의 또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 척도(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수용도(social acceptanc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6문항이며, 문항 예시는 '나는 언제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이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4점이다. 또래 수용도는 여섯 문항 응답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한 자신의 또래 수용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Cronbach의 α값은 .72였다.

(2) 친한 친구 수

아동의 친한 친구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여러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이름을 모두 적어주세요.'라고 질문하였다. 친한 친구 수는 아동이 기재한 이름의 수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한 친구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Harter는 이 척도를 2012년에 개정하였다. 2012년 개정판은 사회적 수용도의 명칭을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으로 바꾸었으며, 해당 문항도 수정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도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개정 이전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3) 단짝관계 질

아동의 단짝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와 Asher(1993)의 척도(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Revised; FQQ-R)를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제외한 뒤 사용하였다[2]. 원척도는 관계의 질을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연구는 관계의 갈등 대립이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으며, 친밀 교환이 자기노출 문항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개 하위요인은 신의, 갈등 해결, 도움, 어울리기이다.

우선, 아동은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이름을 적고, 그 후에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단짝관계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각 문항을 읽고, 이름을 적은 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를 선택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3문항이며, 신의 4문항, 갈등 해결 2문항, 도움 5문항, 어울리기 2문항이다. 신의 문항 예시는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대한다.', 갈등 해결 문항 예시는 '우리는 싸우더라도 쉽게 화해한다.', 도움 문항 예시는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해준다.', 어울리기 문항 예시는 '우리는 둘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서로를 파트너로 선택한다.'이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4점이다. 단짝관계의 질은 네 영역 평균의 평균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짝관계 질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Cronbach의 α값은 신의 .75, 갈등 해결 .73, 도움 .79, 어울리기 .62였다.

---

2) 예를 들어 원척도는 어울리기 영역에서 'always sit together at lunch'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점심을 각자 먹는다고 응답하여,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3) 자기노출

아동의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Wheeless(1978)의 척도에서 요인계수 값이 .6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뒤,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heeless와 Grotz(1976)의 척도(the revised self-disclosure scale; RSDS)를 수정한 척도이다. 전체 문항 수는 26문항이며, 풍부성 6문항, 정확성 6문항, 개방성 4문항, 긍정성 10문항이다. 각 영역은 대면 자기노출 문항과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Huang과 Yang(2013)은 요인 분석을 통해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의 하위요인이 일치하며, 이 척도가 각각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풍부성 문항 예시는 '내 자신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대화를 짧게 한다.', 정확성 문항 예시는 '나는 내 감정, 생각, 행동, 경험 등에 관하여 얘기할 때마다 항상 진심인 것은 아니다.', 개방성 문항 예시는 '나는 종종 망설임 없이 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공개한다.', 긍정성 문항 예시는 '나는 자주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이다. 대면 자기노출은 아동이 또래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자기노출은 아동이 또래와 '인스턴트 메시지로' 얘기할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4점이다.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은 문항 응답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풍부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노출 정보의 양이 많거나, 노출 시간의 길이가 길고, 노출 빈도가 잦은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노출이 솔직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 개방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노출에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성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기노출 정보의 비율이 부정적 자기노출 정보의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의 Cronbach의 α값은 각각 풍부성 .63과 .64, 정확성 .62와 .64, 개방성 .72와 .62, 긍정성 .68과 .74였다.

4) 통제 변수

이 연구는 아동의 성별, 성격, 스마트폰 소유 여부, 형제자매 수, 양부모 가구 여부를 통제 변수로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성격은 이선희와 최영임(2011)의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를 활용하였다. 다섯 요인은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유연성이다[3].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Cronbach의 α값은 각각 .66, .72, .71, .62, .67이었다. 스마트폰 소유 여부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형제자매 수는 아동의 형제자매 수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양부모 가구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은 1, 그 외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

3) 이선희와 최영임(2011)은 성격 5요인을 각각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는 성격의 개방성이 자기 노출의 개방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유연성으로 명명하였다.

3. 연구 절차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 절차를 서술한다. 이 연구는 세 차례의 예비조사, 본조사, 자료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예비조사

이 연구는 세 차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연구 설계를 수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아동 네 명(남아 1명, 여아 3명)이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연구 도구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은 각 척도의 문항에 응답한 뒤, 이해가 가지 않은 문항이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누었다. 1차 예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로움과 또래 수용도 문항 방식을 결정하였다. 외로움과 또래 수용도의 원척도는 양자택일 방식이다. 아동은 하나의 문항에 대하여 한 번에 응답하는 리커트식 응답 방법을 두 단계로 응답하는 양자택일 응답 방법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은 리커트식 응답에 익숙하였으며, 아동의 양자택일과 리커트식 응답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다. 이 연구는 응답자의 편의성이 측정의 엄밀함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로움과 또래 수용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의 응답 순서를 변경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의 순서를 문항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대면 자기노출 1번 문항에 응답한 뒤, 비대면 자기노출 1번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네 명의 아동 중 두 명은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였다. 1차 예비조사 후, 문항의 순서를 대면 자기노출 문항에 모두 응답하고,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면 자기노출 1

번 문항부터 13번 문항까지 응답한 뒤, 비대면 자기노출 1번 문항부터 13번 문항까지 응답하는 방식이다.

2차 예비조사는 아동 세 명(남아 2명, 여아 1명)이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1차 예비조사를 통해 바뀐 설문을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이 참여하였다.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첫째, 단짝관계 질 문항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단짝관계의 질은 특정 또래관계에 한정하여 아동이 문항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짝관계의 질을 먼저 응답한 뒤, 다른 문항에 응답하는 경우 문항 해석에 혼돈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단짝관계의 질을 가장 마지막 문항으로 이동하였다.

둘째, 대면 자기노출 문항과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일부 아동이 대면 자기노출 문항과 온라인 자기노출 문항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면 자기노출 문항에 관하여 먼저 응답하고, 다른 문항을 진행한 뒤, 비대면 자기노출 문항에 응답하도록 문항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또한,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가하였다. 대면 자기노출은 '친구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임을 강조하였으며, 비대면 자기노출은 '친구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얘기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지란 게임 채팅, 문자, 카카오톡,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DM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3차 예비조사는 아동 두 명(남아 1명, 여아 1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을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아동의 응답이 온라인 환경에서 제대로 기록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설문 응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아동이 문항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의 응답이 기록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과제 수행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7개소에 재학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에 모집문건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한 뒤, 4학년 부장 교사에게 공문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로 안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고, 교사의 질의에 답하였다. 연구에 관한 설명이 끝난 뒤, 해당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한 학교에 방문하여 아동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동 제공용 모집문건을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으며, 각 반 담임교사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전달받은 동의서와 첨부된 아동 제공용 모집문건을 아동에게 배포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아동, 그리고 이에 동의한 보호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를 통해 동의서를 전달받고, 이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아동은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문항에 응답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 아동의 외로움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이 집단관계 외로움, 그리고 양자관계 외로움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하여,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연관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식에 통제 변수를 투입한 모형(모형 1)과 통제 변수와 함께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추가한 모형(모형 2)을 비교하여,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격과 더불어 또래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모형 2가 모형 1보다 R^2이 더 높은지 확인하고, 모형 2의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모형 2와 회귀식에 통제 변수, 또래관계 변수와 함께 또래관계 변수의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모형 3)을 비교하여 결정계수가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 3이 모형 2보다 R^2이 더 높은지 확인하고, 모형 3의 또래 수용도 제곱항, 친한 친구 수 제곱항,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이 외로움과 각각 비선형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mclust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형 개수별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Integrated Completed Likelihood(ICL), entropy를 참고하였으며(Biernacki et al., 2000; Fraley & Raftery, 1998),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를 시행하였

다(McLachlan & Peel, 2000). BLRT 시행 시 표본 생성 횟수는 999번으로 정하였다. 유형의 개수를 정한 뒤,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자기노출 특징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 ANCOVA)을 시행하였다.

연구문제 4에 답하기 위하여, 산점도를 통해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한 모형(모형 5)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결정계수가 증가하는지,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의 과정은 R(4.2.0 version)을 이용하였다.

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한다. 먼저 학령 중기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을 확인한다. 둘째,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선형 관계와 비선형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외로움 차이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

이 절에서는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양상을 살펴본다.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4],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격과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본다.

집단관계 외로움 평균은 1.94점으로 중간 수준(2.50점)보다 낮았다. 표준편차는 .59점이었으며, 왜도는 .65, 첨도는 3.11이었다(표 Ⅴ-1). 집단관계 외로움은 정규분포에 비해 다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였다. 집단관계 외로움이 중간 수준(2.50점) 이상인 아동은 102명(19.84%), 높은 수준(3.00점) 이상인 아동은 38명(7.3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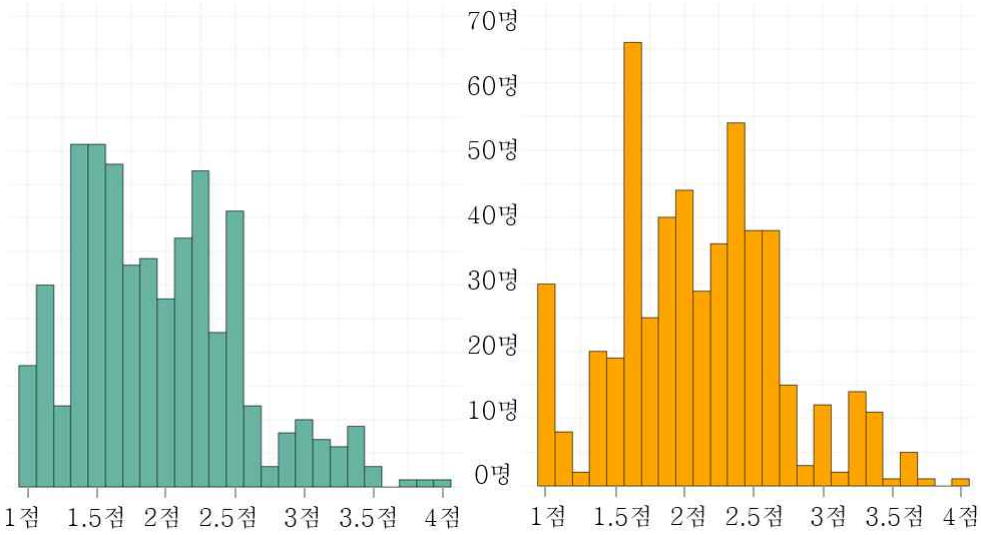
양자관계 외로움 평균은 2.10점으로 중간 수준(2.50점)보다 낮았다. 표준편차는 .59점이었으며, 왜도는 .29, 첨도는 2.93이었다(표 Ⅴ-1). 양자관계 외로움의 분포는 집단관계 외로움의 분포보다 정규분포에 더 가까웠다. 양자관계 외로움이 중간 수준(2.50점) 이상인 아동은 141명(27.43%), 높은 수준(3.00점) 이상인 아동은 47명(9.14%)이었다.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양상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Ⅴ-1과 같다.

---

4) 정규분포의 왜도는 0, 첨도는 3이다.

<표 Ⅴ-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집단관계 외로움	1-4	1.94	.59	.65	3.11
양자관계 외로움	1-4	2.10	.59	.29	2.93



[그림 Ⅴ-1] 집단관계 외로움(좌), 양자관계 외로움(우)의 분포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과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2).

스마트폰 소유 여부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t=-.40, p>.05)과 양자관계 외로움(t=1.22, p>.05)의 차이는 없었으며, 형제자매 수는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Ⅴ-2> 아동의 성별, 양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

		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	
		평균	t	평균	t
성별	여	1.99	2.02^{*}	2.22	4.57^{***}
	남	1.89		1.99	
양부모	미동거	2.32	2.57^{*}	2.44	3.09^{**}
	동거	1.92		2.08	

$^{*}p < .05$, $^{**}p < .01$, $^{***}p < .001$

아동의 성격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이 낮은 아동이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유연성이 낮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표 Ⅴ-3). 아동의 유연성과 집단관계 외로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Ⅴ-3> 아동의 성격과 집단관계 외로움 및 양자관계 외로움의 상관관계

	집단관계 외로움	양자관계 외로움
성실성	$-.28^{***}$	$-.31^{***}$
정서적 안정성	$-.12^{**}$	$-.13^{**}$
우호성	$-.28^{***}$	$-.24^{***}$
외향성	$-.10^{*}$	$-.14^{**}$
유연성	-.06	$-.19^{***}$

$^{*}p < .05$, $^{**}p < .01$, $^{***}p < .001$

제1절의 분석 결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이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하며, 일부 아동은 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은 집단관계 외로움을 중간 수준 이상 느끼며, 네 명 중 한 명은 양자관계 외로움을 중간 수준 이상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성격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가 남아보다,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함께 사는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이 낮은 아동은 집단관계 외로움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유연성이 낮은 아동은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

이 절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과 집단관계 외로움, 그리고 양자관계 외로움의 연관성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선형 관계와 비선형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1)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상관관계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표 Ⅴ-4),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은 집단관계 외로움과 각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상관관계 계수가 각각 0보다 작았다. 이는 또래 수용도가 낮고, 친한 친구 적으며, 단짝관계의 질이 부정적인 아동이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은 양자관계 외로움과 각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상관관계 계수가 각각 0보다 작았다. 이는 또래 수용도가 높고, 단짝관계의 질이 긍정적인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한 친구 수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Ⅴ-4>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상관관계

	1	2	3	4
1. 집단관계 외로움	1			
2. 양자관계 외로움	.63***	1		
3. 또래 수용도	-.55***	-.42***	1	
4. 친한 친구 수	-.23***	-.07	.26***	1
5. 단짝관계의 질	-.31***	-.54****	.25***	.06

***p < .001

2)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격 변수로 이루어진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관계 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는지, 각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먼저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모형 A). 첫 번째 모형은 집단관계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격 변수를 활용한 모형이다(모형 A-1). 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16.34, p<.001), 설명력은 R^2이 .16, 수정된 R^2이 .15였다.

두 번째 모형은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모형 A-1에 추가한 모형이다(모형 A-2). 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33.86, p<.001), 설명력은 R^2이 .38, 수정된 R^2이 .37이었다. 모형 A-1과 비교할 때, R^2이 .22 증가하였다(p<.001).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Ⅴ-5). 또래 수용도가 낮고, 친한 친구 수가 적고,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집단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Ⅴ-5>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5)]

	집단관계 외로움(모형 A-2)	
	B	β
또래 수용도	-.41***	-.41
친한 친구 수	-.02**	-.12
단짝관계 질	-.15**	-.12

**p < .01, ***p < .001

5) 모형 A-1과 모형 A-2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모형 B). 첫 번째 모형은 양자관계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격 변수를 활용한 모형이다(모형 B-1). 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F=18.17, p<.001), 설명력은 R^2이 .20, 수정된 R^2이 .19였다.

두 번째 모형은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모형 B-1에 추가한 모형이다(모형 B-2). 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44.06, p<.001), 설명력은 R^2이 .44, 수정된 R^2이 .43이었다. 첫 번째 모형 비교할 때, R^2이 .24 증가하였다(p<.001).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양자관계 외로움에 대한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Ⅴ-6). 또래 수용도가 낮고,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친한 친구 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Ⅴ-6> 또래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선형 관계[6)]

	양자관계 외로움(모형 B-2)	
	B	β
또래 수용도	-.26***	-.26
단짝관계 질	-.49***	-.42

***p < .001

6) 모형 B-1과 모형 B-2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제곱항을 추가한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는지,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먼저 또래관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모형 A-3은 또래 수용도 제곱항을 모형 A-2에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A-3은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F=32.65, p<.001), 설명력은 R^2이 .39, 수정된 R^2이 .38이었다. 모형 A-2와 비교할 때, R^2이 .01 증가하였다(p<.001).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또래 수용도의 부호는 음수, 또래 수용도 제곱항의 부호는 양수였다(표 Ⅴ-7). 이는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이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Ⅴ-7>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7)]

	집단관계 외로움(모형 A-3)	
	B	β
또래 수용도	-1.38***	-1.40
또래 수용도 제곱항	.19***	.99

***p < .001

7) 모형 A-3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모형 B-3은 또래 수용도 제곱항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을 모형 B-2에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B-3는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F=40.69, p<.001), R^2은 .47, 수정된 R^2은 .46이었다. 모형 B-2과 비교할 때, R^2이 .03 증가하였다(p<.001).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또래 수용도의 부호는 음수, 또래 수용도 제곱항의 부호는 양수였다(표 Ⅴ-8). 이는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이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단짝관계 질의 부호는 양수,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부호는 음수였다. 이는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단짝관계 질이 중간인 아동이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Ⅴ-8>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8)]

	양자관계 외로움(모형 B-3)	
	B	β
또래 수용도	-1.34***	-1.35
또래 수용도 제곱항	.22***	1.11
단짝관계 질	.95**	.81
단짝관계 질 제곱항	-.24***	-1.25

**p < .01, ***p < .001

8) 모형 B-3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제2절의 분석 결과는 학령 중기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동의 또래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만을 포함한 모형(모형 A-1과 모형 B-2)보다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추가한 모형(모형 A-2와 모형 B-2)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또래 수용도가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래 수용도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모형 A-3과 모형 B-3)에서 또래 수용도의 회귀계수는 음수, 또래 수용도 제곱항의 회귀계수는 양수였다. 이는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이 비선형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이 단짝관계 질이 중간인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짝관계 질의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모형 B-3)에서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는 양수,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회귀계수는 음수였다. 이는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비선형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3. 자기노출 유형과 외로움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아동을 구분하기 위하여 유형의 개수를 결정한다. 유형의 개수를 결정한 뒤,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자기노출 특성이 어떠한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공분산 분석을 활용하여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를 살펴본다.

1) 자기노출 유형의 개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노출 유형의 개수별 BIC, ICL, entropy 값을 확인하고, BLRT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확인하였다(표 Ⅴ-9[9]). 분석 결과, BIC 절댓값은 유형의 개수가 1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ICL 절댓값은 유형의 개수가 1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유형의 개수가 2개일 때보다 3개일 때 ICL 절댓값이 다소 높았다. Entropy는 유형의 개수가 2개일 때 .79였으며, 3개일 때부터 6개일 때까지 모두 .80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BLRT 시행 결과, 유형의 개수가 1개일 때부터 6개일 때까지 차이가 각각 유의하였으며, 6개일 때와 7개일 때의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값은 -103.90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형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아동의 10% 미만이 속한 유형이 각각의 모형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통계적 기준과 구분된 유형의 해석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9) 이 연구는 집단 내, 집단 간 공분산을 0으로 고정한 EEI 모형을 활용하였다.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세 개 유형에 속한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171명(33.27%), 두 번째 유형은 250명(48.64%), 세 번째 유형은 93명(18.09%)이었다.

<표 Ⅴ-9> 유형 개수별 모형적합도 지수

		자기노출 유형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BIC		-7162.98	-7122.51	-6975.28	-6870.82	-6612.61
ICL		-7237.43	-7250.70	-7090.46	-6986.77	-6740.20
entropy		.79	.81	.83	.85	.85
LRT		438.98***	96.66***	203.41***	160.64***	314.39***
비율 (%)	1	50.97	33.27	32.10	3.50	3.50
	2	49.03	48.64	36.56	30.54	22.96
	3		18.09	9.34	36.38	21.98
	4			21.98	7.39	20.23
	5				22.18	15.37
	6					15.95

***$p < .001$

2)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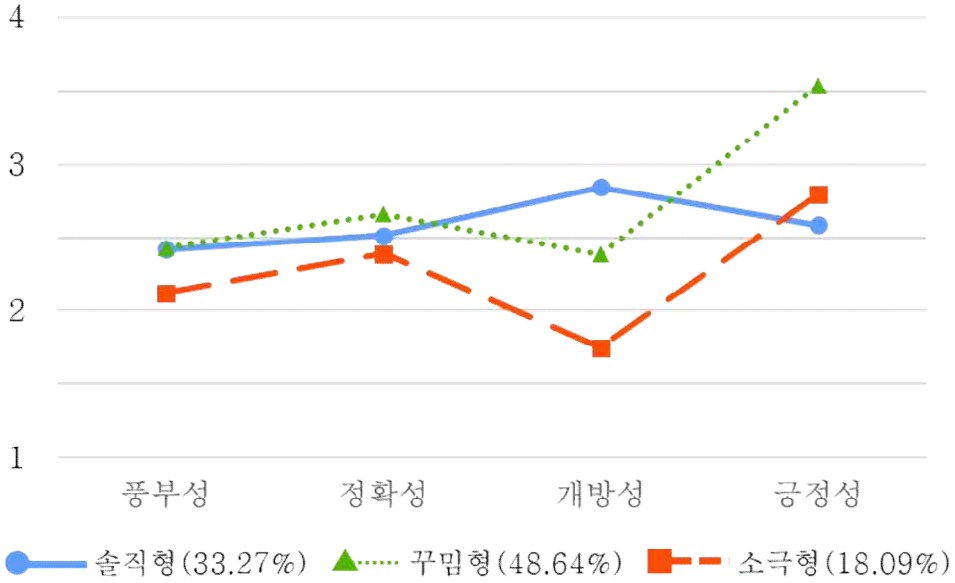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자기 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표 Ⅴ-10). 아동의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이 대면과 비대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대면 자기노출과 비대면 자기노출을 합쳐서 분석하였다.[10)]

첫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자기노출의 풍부성이 중간 수준이었으며(2.42점), 정확성이 중간 수준이었다(2.51점). 개방성은 높은 수준이었으며(2.85점), 긍정성은 중간 수준이었다(2.59점).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자기노출의 풍부성이 중간 수준이었으며(2.43점), 정확성이 중간 수준이었다(2.66점). 개방성은 중간 수준이었으며(2.39점), 긍정성은 높은 수준이었다(3.54점).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자기노출의 풍부성이 적은 수준이었으며(2.12점), 정확성이 중간 수준이었다(2.39점). 개방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며(1.75점), 긍정성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2.79점).

첫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과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의 자기 노출 풍부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확성 차이가 약 0.15점으로 적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개방성이 다소 높았으며(2.85점),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긍정성이 높았다(3.54점). 첫 번째 유형은 또래에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고,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함께 노출한다는 점에서 솔직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노출하지만, 긍정적 정보를 노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꾸밈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아동은 다른 두 유형의 아동보다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긍정성이 다소 높은 특징을 반영하여,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그림 Ⅴ-2).

---

10) 대면과 비대면 자기노출을 구분한 분석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그림 Ⅴ-2]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표 Ⅴ-10> 유형별 자기노출 특성

	유형 1 : 솔직형	유형 2 : 꾸밈형	유형 3 : 소극형	*F*(*df*)
풍부성	2.42 [b]	2.43 [b]	2.12 [a]	17.03(2)***
정확성	2.51 [a]	2.66 [b]	2.39 [a]	10.11(2)***
개방성	2.85 [c]	2.39 [b]	1.75 [a]	124.48(2)***
긍정성	2.59 [a]	3.54 [c]	2.79 [b]	663.82(2)***

***p < .001

3)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다른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보정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공분산 분석 결과,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90.01, p<.001). 솔직형 아동과 소극형 아동이 꾸밈형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으며(p<.001), 솔직형 아동과 소극형 아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집단관계 외로움의 보정 평균은 소극형 2.46점, 솔직형 2.33점, 꾸밈형 1.72점이었다(표 Ⅴ-11).

아동의 양자관계 외로움도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29.88, p<.001). 소극형 아동이 솔직형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으며(p<.05), 솔직형 아동이 꾸밈형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p<.001). 양자관계 외로움의 보정 평균은 소극형 2.56점, 솔직형 2.40점, 꾸밈형 2.06점이었다(표 Ⅴ-11).

<표 Ⅴ-11>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11]

		보정 평균	표준 오차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집단관계 외로움	솔직형	2.33 [b]	.06	2.22	2.45
	꾸밈형	1.72 [a]	.06	1.61	1.83
	소극형	2.46 [b]	.07	2.33	2.59
양자관계 외로움	솔직형	2.40 [b]	.06	2.27	2.52
	꾸밈형	2.06 [a]	.06	1.94	2.18
	소극형	2.56 [c]	.07	2.42	2.70

11) 공분산분석의 모든 변수에 대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제3절의 분석 결과는 학령 중기 아동의 자기노출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아동을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을 자기노출의 개방성이 높으며, 풍부성, 정확성, 긍정성이 중간 수준인 솔직형, 자기노출의 긍정성이 높으며,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이 중간 수준인 꾸밈형, 다른 유형의 아동에 비해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이 낮은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분산분석 결과, 소극형과 솔직형 아동은 꾸밈형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소극형 아동과 솔직형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은 차이가 없었다. 한편, 소극형 아동은 솔직형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솔직형 아동은 꾸밈형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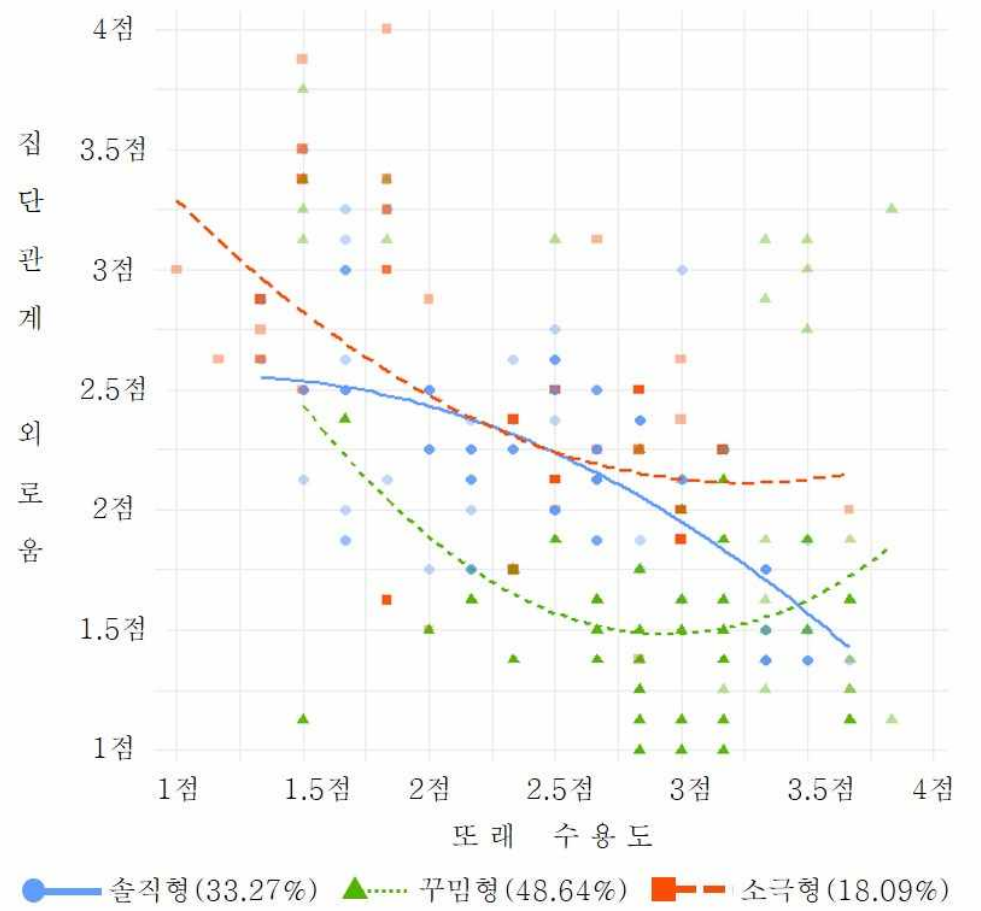
4.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이 절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자기노출 유형 더미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확인한다(모형 3). 다음으로 또래관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 향상 여부를 확인한다(모형 4).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살펴본다(모형 5). 모든 과정은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1)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제2절에서는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 즉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산점도를 확인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점도를 살펴보면, 솔직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낮을 때 집단관계 외로움을 중간 정도로 느꼈으며, 또래 수용도가 높을 때 집단관계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꾸밈형 아동은 전반적으로 집단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지만,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과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또한, 또래 수용도가 높으면서 집단관계 외로움이 높은 아동은 주로 꾸밈형 아동이었다. 소극형 아동은 전반적으로 꾸밈형 아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들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은 꾸밈형 아동보다 더 높았다(그림 Ⅴ-3).



[그림 Ⅴ-3]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 산점도

산점도를 확인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노출 유형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집단관계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였다(모형 A-4[12]). 모형 A-4는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43.04, p<.001), 설명력은 R^2이 .51, 수정된 R^2이 .50이었다. 모형 A-3과 비교할 때, R^2이 .12 증가하였다(p<.001). 이는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노출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꾸밈형 더미 변수와 소극형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모형 A-5는 또래 수용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A-4에 추가한 모형이다. 상호작용항은 꾸밈형 더미 변수와 소극형 더미 변수를 또래 수용도와 또래 수용도 제곱항에 각각 곱한 것이다. 모형 A-5는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35.47, p<.001), 설명력은 R^2이 .53, 수정된 R^2이 .52이었다. 모형 A-4과 비교할 때, R^2이 .02 증가하였다(p<.00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는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Ⅴ-12). 또래 수용도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5), 또래 수용도 제곱항 회귀계수는 음수였다(B=-.19, p<.01). 그러나 또래 수용도와 꾸밈형 상호작용항, 그리고 또래 수용도와 소극형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각각 음수였으며, 또래 수용도 제곱항과 꾸밈형 상호작용항, 그리고 또래 수용도 제곱항과 소극형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각각 양수였다. 그리고 그 절댓값이 또래 수용도와 또래 수용도 제곱항의 회귀계수보다 각각 더 컸다. 이는 솔직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을수록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꾸밈형과 소극형 아동의 경우는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Ⅴ-12>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A[13])

	집단관계 외로움(모형 A-5)	
	B	β
또래 수용도	.56	.56
또래 수용도 제곱항	-.19**	-.96
또래 수용도*꾸밈형	-2.81***	-7.01
또래 수용도 제곱항*꾸밈형	.57***	4.53
또래 수용도*소극형	-1.95**	-3.09
또래 수용도 제곱항*소극형	.41**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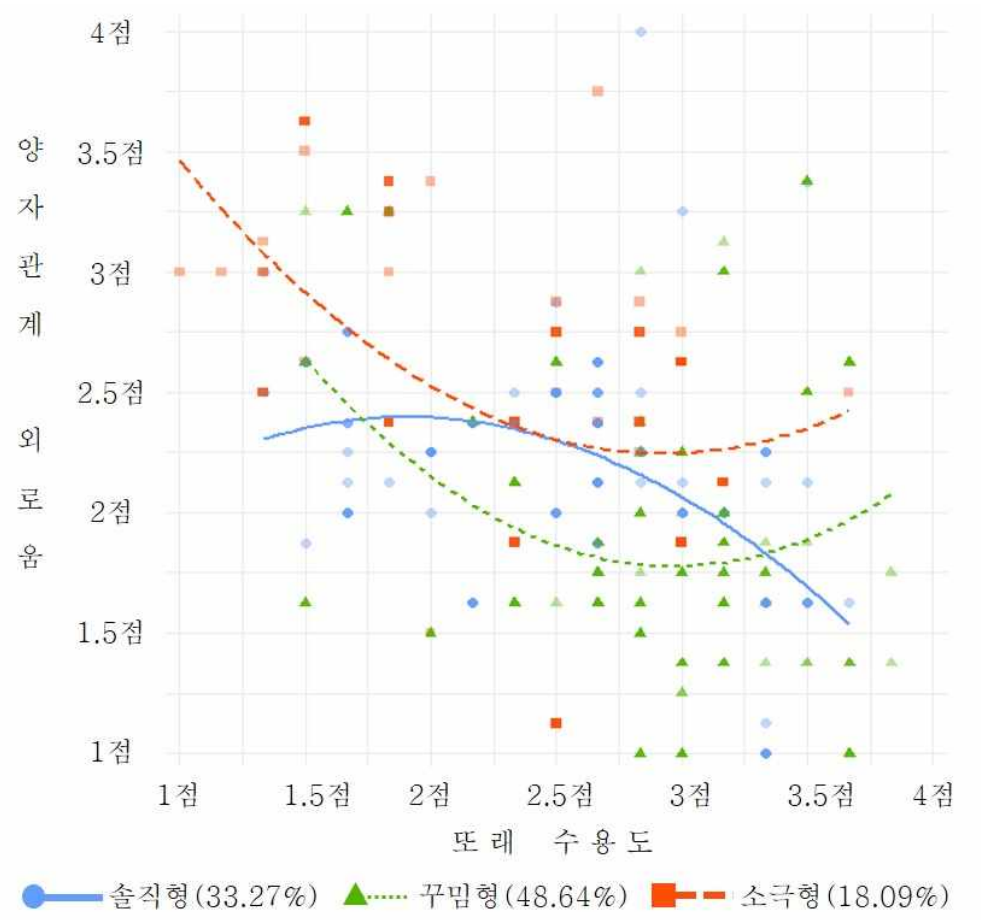
**p < .01, ***p < .001

13) 모형 A-4와 A-5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2)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1)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제2절에서는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 그리고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점도를 확인하였다(그림 Ⅴ-4).



[그림 Ⅴ-4]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 산점도

솔직형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과 중간인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이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꾸밈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을수록 양자관계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은 어느 정도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꼈으며, 그 정도는 또래 수용도가 중간인 아동보다 더 높았다. 소극형 아동은 전반적으로 꾸밈형 아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들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은 꾸밈형 아동보다 더 높았다.

산점도를 확인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노출 유형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양자관계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였다(모형 B-4[14]). 모형 B-4는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36.71, p<.001), 설명력은 R^2이 .49, 수정된 R^2이 .48이었다. 모형 B-3과 비교할 때, R^2이 .02 증가하였다(p<.001). 이는 아동의 양자관계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노출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B-5는 또래 수용도와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항, 단짝관계 질과 자기노출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B-4에 추가한 모형이다. 또래 수용도 상호작용항은 꾸밈형 더미 변수와 소극형 더미 변수를 또래 수용도와 또래 수용도 제곱항에 각각 곱한 것이며, 단짝관계 질 상호작용항은 꾸밈형 더미 변수와 소극형 더미 변수를 단짝관계 질와 단짝관계 질 제곱항에 각각 곱한 것이다. 모형 B-5는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F=27.55, p<.001), 설명력은 R^2이 .54, 수정된 R^2이 .52이었다. 모형 B-4과 비교할 때, R^2이 .05 증가하였다(p<.00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모형 B-5),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표 Ⅴ-13). 또래 수용도 회귀계수는 양수, 또래 수용도 제곱항 회귀계수는 음수였다. 반면, 또래 수용

14)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꾸밈형 더미 변수와 소극형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도와 꾸밈형 및 소극형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각각 음수였으며, 또래 수용도 제곱항과 꾸밈형 및 소극형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각각 양수였다. 그리고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솔직형 아동과 달리, 꾸밈형과 소극형 아동의 경우,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Ⅴ-13>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도와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B[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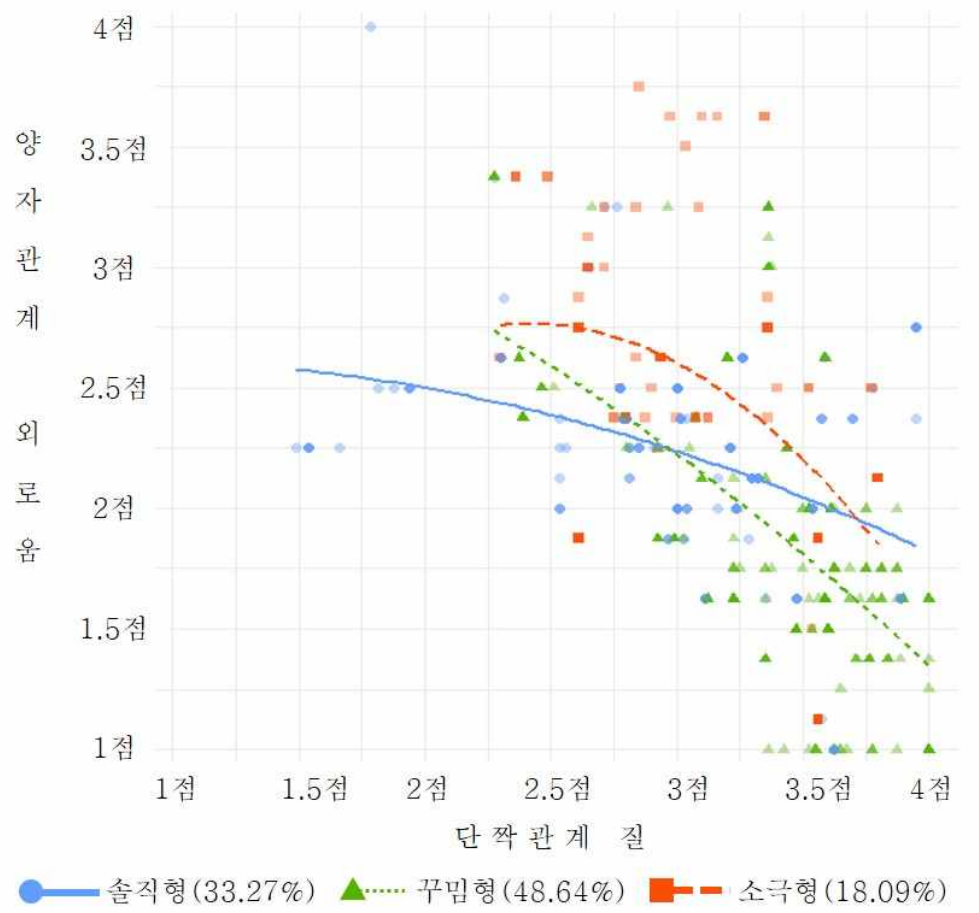
	양자관계 외로움(모형 B-5)	
	B	β
또래 수용도	1.29**	1.30
또래 수용도 제곱항	-.31**	-1.56
또래 수용도*꾸밈형	-2.95***	-7.34
또래 수용도 제곱항*꾸밈형	.58***	4.57
또래 수용도*소극형	-3.61***	-5.70
또래 수용도 제곱항*소극형	.74**	3.19

$^{**}p < .01$, $^{***}p < .001$

15) 모형 B-4와 B-5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2)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점도를 확인하였다(그림 Ⅴ-5). 단짝관계 질은 대다수 아동이 보통 이상이었으나, 일부 아동은 단짝관계 질이 낮았으며, 이는 대부분 솔직형 아동이었다. 세 유형 모두 단짝관계 질이 높을수록 양자관계 외로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다만, 소극형 아동은 단짝관계 질이 보통일 때에도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의 정도가 다소 높은 특징이 있었다.



[그림 Ⅴ-5]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 산점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모형 B-5),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표 Ⅴ-14). 단짝관계 질,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각을 꾸밈형 더미변수와 곱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솔직형과 꾸밈형 아동의 경우, 양자관계 외로움에 대한 단짝관계 질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단짝관계 질과 소극형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양수였으며, 단짝관계 질 제곱과 소극형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음수였다. 그리고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단짝관계 질이 보통인 아동은 단짝관계 질이 좋은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Ⅴ-14>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단짝관계 질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관계의 차이(모형 B[16])

	양자관계 외로움(모형 B-5)	
	B	β
단짝관계 질	-.48	-.41
단짝관계 질 제곱항	.06	.30
단짝관계 질*꾸밈형	.15	.44
단짝관계 질 제곱항*꾸밈형	-.12	-1.19
단짝관계 질*소극형	4.01*	8.06
단짝관계 질 제곱항*소극형	-.73*	-4.73

*$p < .05$

16) 모형 B-4와 B-5의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제4절의 분석 결과는 학령 중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솔직형 아동의 경우, 또래 수용도나 단짝관계 질이 높은 아동이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꾸밈형 아동의 경우,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또래 수용도가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모두 나타났다. 한편, 단짝관계 질과 관련하여, 산점도에서는 단짝관계 질이 낮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양자관계 외로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단짝관계 질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단짝관계 질이 보통인 아동이 단짝관계 질이 좋은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은 단짝관계 질이 좋아서가 아닌,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성격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극형 아동의 경우, 꾸밈형 아동과 마찬가지로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관계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이 유사하였지만, 또래 수용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집단관계 외로움보다 양자관계 외로움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또래 수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극형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은 유사하지만, 또래 수용도가 낮은 소극형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은 집단관계 외로움보다 더 컸다. 한편, 소극형은 단짝관계 질이 좋은 아동이 양자관계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논의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또래관계와 자기노출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학령 중기는 외로움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시기이자,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이후의 건강한 발달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 이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선형, 비선형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 연구는 외로움과 자기노출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이 또래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동의 자기노출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아동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외로움이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7개소에 재학하는 4학년 아동 51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외로움은 소속감과 관련 있는 집단관

계 외로움과 친밀감과 관련 있는 양자관계 외로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은 대면과 비대면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 긍정성을 통해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중기 아동의 약 세 명 중 한 명은 외로움을 느낀다. 이는 4학년 아동의 약 2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obe-Shields et al, 2011), 5점 척도에서 3.5점 이상인 아동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보다 높은 비율이다(Song et al., 2018). 반면, 아동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의 비율이 48%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보다는 낮은 비율이다(Harris et al., 2013). 이 연구에서 집단관계 외로움이나 양자관계 외로움을 중간 이상으로 느낀 아동의 비율은 31.91%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의 평균을 확인하였기에, 외로운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Salo et al., 2019; Song et al., 2018). 이 연구의 결과는 학령 중기의 아동에게서 외로움이 일부 소수의 현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자, 그러한 아동에게 관심을 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떠한 외로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은 서로 구분되는 정서이며, 하나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반드시 다른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 두 외로움의 상관관계 계수는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Hoza et al., 2000). 이는 사회적 욕구에 따라 외로움의 구분을 강조한 사회적 욕구 접근을 지지하는 결과이다(Shaver & Buhrmester, 1983; Weiss, 1973). Hoza 등(2000)은 Weiss(1973)의 논의를 근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고학년 전이기 아동, 즉 9세 혹은 10세 아동도 두 외로움을 다르게 느끼는 것을

밝혔다.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은 또래관계와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과 청소년의 두 외로움이 서로 다른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DiTommaso et al., 2004; Lasgaard et al., 2011).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두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시점에서, 아동의 외로움을 구분하고 또래관계와 각각의 외로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는 함의가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친구 관계 질이 각각 외로움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Kingert et al., 2011; Lodder et al., 2017; Vanhalst et al., 2014). 이 연구에서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의 수, 단짝관계 질은 각각 집단관계 외로움과 관련이 있었지만, 친한 친구의 수는 양자관계 외로움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선행연구가 사용한 외로움을 측정하는 방식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Kingery 등(2011)은 아동의 또래 수용도, 친구의 수, 친구 관계의 질이 각각 외로움과 관련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Asher와 Wheeler(1985)의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Hoza 등(2000)은 Asher 등(1984)의 외로움 척도가 상대적으로 양자관계 외로움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더욱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구분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한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연관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집단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와 양자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다르므로, 외로운 아동을 위한 개입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떠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지 알아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학령 중기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 꾸밈형, 소극형으로 구분된다. 이

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강조한 Cozby(1973)의 논의와 Gilbert와 Whiteneck(1976)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전체 아동의 약 절반은 자기노출 꾸밈형에 속한다. 꾸밈형은 또래에게 주로 자신의 긍정적 정보를 노출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전체 아동의 세 명 중 한 명은 자기노출 솔직형에 속한다. 솔직형은 또래에게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도 함께 공유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아동은 자기노출 소극형에 속한다.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자기노출의 풍부성, 정확성, 개방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세 유형 중 소극형 아동은 외로움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소극형 아동이 꾸밈형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과 외로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Rogers, 1970; Strokes, 1987). 또한, 자기노출 감소에 따른 외로움 증가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Chen et al., 2021; Mahon et al., 2006; Matsushima & Shiomi, 2001). Matsushima와 Shiomi(2001)는 피상적인 자기노출로는 외로움이 경감될 수 없으며 내면적 자아의 노출이 외로움 경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소극형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사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으며, 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친밀감이나 소속감 욕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소극형 아동의 경우, 특히, 또래 수용도가 낮을 때, 중간일 때, 높을 때 모두 솔직형이나 꾸밈형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또래 수용도가 높은 소극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낮은 소극형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외로움을 느낀다. 이에 더해, 단짝과 관계의 질이 좋다고 여기는 아동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끼며, 그 정도는 다른 두 유형의 아동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기존의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관계의 개선을 통한 외로움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다(Parekr & Asher, 1993; Lodder et al., 2017; Kingert, 2011). 이 연구 결과는 아동

의 또래관계가 그들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기노출 유형의 아동은 또래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노출 소극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고, 단짝관계 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또래 수용도가 높지 않고 단짝관계 질이 좋지 않은 다른 자기노출 유형의 아동보다 더 많은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외로움 경감을 위하여 그들의 또래관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꾸밈형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다. 자기노출 꾸밈형에 속한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이는 아동기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를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Maresky et al., 2021). 이 연구는 외로움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꾸밈형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가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을 밝힌 함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친밀한 관계의 부족으로 해석하였다(Ferguson & Ryan, 2019; Maresky et al., 2021). Maresky 등(2021)은 인기 아동이 성취감을 주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Ferguson과 Ryan(2019)은 또래 선호가 신체적 매력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인기 아동이 친밀한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친밀한 우정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또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아동이 친밀감과 관련 있는 양자관계 외로움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관련 있는 집단관계 외로움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의 산점도는 또래 수용도와 집단관계 외로움이 모두 높은 아동이 모두 꾸밈형 아

동임을 보였다.

또래 수용도가 높은 꾸밈형 아동이 또래 수용도가 중간인 꾸밈형 아동보다 집단관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또래 집단의 특성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은 집단 외 또래에 대한 배타성을 통해 집단 내 구성원과 유대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소속감 욕구를 충족한다(Ojiambo & Taylor, 2015; Rubin et al., 2015). 그런데 또래 수용도가 높은 꾸밈형 아동은 다수의 또래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동이자, 또래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주로 노출하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clique)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나, 더 넓은 집단(crowd)의 또래에게도 배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솔직하지 못한 자기노출 방식은 집단 내 구성원과 유대감을 쌓는 데 방해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래 수용도가 높은 꾸밈형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양자관계 외로움뿐만 아니라 집단관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넓은 범위의 또래 집단관계에 관한 또래 수용도만을 살펴보았기에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친밀한 친구 집단관계와 다수의 또래 집단관계를 구분하여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솔직형 아동의 경우,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 중간인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솔직형 아동의 경우,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 간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수용도와 외로움의 비선형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Ferguson & Ryan, 2019; Maresky et al., 2021)가 자기노출 일부 유형에서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솔직형 아동이 느끼는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정도는 소극형 아동과 유사하다. 이 연구 결과는 솔직형 아동이 소극형 아동만큼 집단관계 외로움을 느끼며, 솔직형 아동과 소극형 아동이 느끼는 양자관계 외로움은 비슷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의 개방성과 외로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Matsushima & Shiomi, 2001), 그리고 부정적 정보의 노출과 친밀성 향상의 연관성을 보고한 선행연구

(Howell & Conway, 1990)와 다른 결과이다. 솔직형 아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소극형보다 또래에게 더 많이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낮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솔직형 아동의 또 다른 특징은 단짝관계 질의 분포에서 나타난다. 이 연구는 단짝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단짝과의 관계의 질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단짝과의 관계의 질에 응답하였기에, 다수의 아동의 단짝관계 질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산점도는 일부 아동의 단짝관계 질이 중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 솔직형 아동이었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솔직형 아동의 집단관계 외로움에 대한 단짝관계 질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는 것을 보였다. 이는 솔직형 아동 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존재하며, 단짝관계 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솔직형 아동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아동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개인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경로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친구와 우정을 쌓고,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아동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Hartup & Stevens, 1997). 솔직형에 속한 아동은 다른 유형에 속한 아동보다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후속 연구는 개인 간 효과와 개인 내 효과를 구분하여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관한 또 다른 해석으로서, 인과성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자기노출의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하여(Derlega

& Margulis, 1982; Rogers, 1970; Strokes, 1987), 자기노출 유형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는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자기노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Al-Saggaf & Nielsen, 2014; Lee et al., 2013). 즉, 외로운 아동이 또래에게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이 자신의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정보, 부정적 정보를 노출한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 외로움과 자기노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과 자기노출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자기노출이 외로움과 관련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서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함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에 관한 논의를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비선형성에 관한 논의와 결합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이 자신을 노출하는 방식은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기노출이 외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 개념으로 고려될 필요성을 제공한다.

둘째, 이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 있는 또래관계에 주목하고,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의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외로움에 관한 오랜 이론적 논의는 외로움이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구분을 아동의 또래관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논의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외로움이 소속감 욕구과 친밀감 욕구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며, 각 영역과 또래관계의 연관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셋째,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확인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자기노출에 관한 이론들은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강조하였으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자기노출의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연구에 따라 자기노출의 다른 특성을 살펴본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자기노출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데 함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자신을 드러내는 시도를 통한 외로움 경감을 제안할 수 있다는 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개입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관계만으로는 사회적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자기노출 유형을 구분한 이 연구의 결과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노출을 할 때, 사회적 관계를 통한 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아동에게 단짝관계의 질을 개선하고,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가르치며, 또래 집단 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과 함께, 이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동일 응답자가 모든 변수에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et al., 2003). 이 연구는 Herman의 단일 요인 검정을 시행하여, 동일 방법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산이 .50 이상일 경우 동일 방법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Podsakoff et al., 2003), 이 연구의 집단관계 외로움 모형의 분산은 .23, 양자관계 외로움 모형의 분산은 .25였다. 다만, 단일 요인 검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여전히 편향으로 인한 추정의 오류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Lodder et al., 2017).

둘째,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 중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여전히 교실 내 마스크 착용과 또래 상호작용의 제한을 경험한 특징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아동의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강희주 등, 2021; 유민상, 신동훈, 2021; 진미정 등 2021)을 고려하여 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자기노출을 실제 발화나 메시지 내용이 아닌 아동의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자기노출에 관한 아동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현실적 이점이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아동의 정보, 생각, 감정에 관한 노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면 혹은 비대면에서 또래와 나누는 대화에 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아동의 자기노출과 외로움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4), 95-120. https://doi.org/10.16881/jss.2021.10.32.4.95

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1), 111-131.

김진경 (2012).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0(1), 55-64.

김진경, 한유진 (2008).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 관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6(6), 95-105.

국립국어원 (2022). '외로움' 검색결과.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2년 2월 28일 검색.

도현심 (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배민영, 신현숙 (2015). 친구관계의 질이 사회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4(3), 177-197. https://doi.org/10.17643/KJCE.2015.24.3.10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기쁨, 민하영 (2020).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대인 간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205-216.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205

이선희, 최영임 (2011).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43-569.

정유진, 김광웅 (2006).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7-232.

진미정, 배한진, 권순범 (2021). 원격수업 시대, 가정의 ICTs 환경 적합성: 가구 및 가구원 수별 스마트기기 보유 단기 종단적 비교.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11-22. https://doi.org/10.14400/JDC.2021.19.1.011

Akay, S. (2015). The extraordinary 8-year-old. In D. C. Ray (Ed.), *A therapist's guide to child development* (pp. 109-120). Routledge

Al-Saggaf, Y., & Nielsen, S. (2014). Self-disclosure on Facebook among female users and its relationship to feelings of loneli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6*, 460-468. https://doi.org/10.1016/j.chb.2014.04.014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Guilford.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2022). Multidimensionality. Retrieved November 23, 2022, from https://dictionary.apa.org/multidimensionality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4), 1456-1464. https://doi.org/10.2307/1130015

Asher, S. R., & Paquette, J. A. (2003).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3), 75-78. https://doi.org/10.1111/1467-8721.01233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https://doi.org/10.1037/0022-006X.53.4.500

Bagwell, C. L., & Schmidt, M. E. (2013). *Friendships in childhood &*

adolescence. The Guilford Press

Bartholomew, D. J., Knott, M., & Moustaki, I. (2011). *Latent variable models and factor analysis: A unified approach (3rd)*. Wiley.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https://doi.org/10.1111/1467-8721.0015

Berndt, T. J., & Perry, T. B. (1990). Distinctive feature and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pp. 269-287). Sage

Biernacki, C., Celeus, G., & Govaett, G. (2000). Assessing a mixture model for clustering with the integrated completed likelihood.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2*(7), 719-725. https://doi.org/10.1109/34.865189

Brendgen, M., Lamarche, V., Wanner, B., & Vitaro, F. (2010). Links between friendship relations and early adolescents'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6*, 491 - 501. https://doi.org/10.1037/a0017413

Bruno, S., Lutwak, N., & Agin, M. A. (2009). Conceptualizations of guilt and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s to emotional ambivalance, self-disclosure, loneliness alie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487-491. https://doi.org/10.1016/j.paid.2009.04.023

Buhrmester, D., Goldfarb, J., & Cantrell, D. (1992). Self-presentation when sharing with friends and nonfrien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1), 61-79. https://doi.org/10.1177/0272431692012001004

Buhrmester, D. P., & Prager, K. (1995). Patterns and functions of self-disclosur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K. k.

Rotenberg (Ed.), *Disclosure proces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0-56).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Wiley.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632.x

Chen, L., Cheng, R., & Hu, B. (2021).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on loneliness in adolescents during COVID-19: The mediating role of peer relationships. *Frontiers in Psychiatry, 19*, 710515. http://www.doi.org/10.3389/fpsyt.2021.710515

Choi, M., & Toma, C. L. (2014). Social sharing through interpersonal media: Patterns and effects on emotional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6*, 530 - 541. https://doi.org/10.1016/j.chb.2014.04.026

Cillessen, A. H. N., & Bellmore, A. D. (2004). Social skill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P. K. Smith, & C. H. Hart (Ed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355-374). Blackwell Publishers

Cillessen, A. H. N. (2009). Sociometric methods.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82-99). Guilford.

Cox, D. A. (2022). *New trends and enduring patterns in American family life*.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Review, 79*. 73-91. https://doi.org/10.1037/h0033950

Davis, K. (2012). Friendship 2.0: Adolescents' experiences of belonging and self-disclosure online. *Journal of Adolescence, 35*, 1527-1536.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02.013

Derlega, V. J., & Margulis, S. T. (1982). Why loneliness occurs: The interrelationship of social-psychological and privacy concept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52-163). Wiley.

Derlega, V. J., & Grzelak, J. (1979).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In G. J. Chelune (Ed.), *Self-disclosure: Origins, patterns, and implications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151-176). Jossey-Bass

Diamond, A., & Lee, K. (2011). Interventions shown to aid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in children 4 to 12 years old. *Science, 333*(6045), 959-964. https://doi.org/10.1126/science.1204529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A.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s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 99 - 119.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8450

Eccles, A.M., Qualter, P., Panayiotou, M., Hurley, R., Bovin, M., & Tremblay, R. E. (2020). Trajectories of early adolescent loneliness: Implications for physical health and sleep.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 3398-3407. https://doi.org/10.1007/s10826-020-01804-3

Eisenberg, N., & Fabes, R.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an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701-778). Wiley.

Feldman, R. S. (2017).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Pearson.

Ferguson, S. M., & Ryan, A. M. (2019). It's lonely at the top: Adolescent students' peer-perceived popularity and self-perceived social conten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 341-358. https://doi.org/10.1007/s10964-018-0970-y

Fraley, C., & Raftery, A. E. (1998). How many clusters? Which clustering method? Answers via model-based cluster analysis. *The Computer Journal, 41*(8), 578-588. https://doi.org/10.1093/comjnl/41.8.578

Galanaki, E. (2004). Are children able to distinguish among the concepts of aloneness, loneliness, and solitud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5), 435-443.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153

Gentina, E., & Chen, R. (2019). Digital natives' coping with loneliness: Facebook or face-toface?. *Information & Management, 56*, 103138.

Greener, S., & Crick, N. R. (1999). Normative beliefs about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What does it mean to be nice?. *Social Development, 8*(3), 349-363. https://doi.org/10.1111/1467-9507.00100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2003).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 235-284. 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48-7

Gilbert, S. J., & Whiteneck, G. G. (1976). Toward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self-disclosur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4), 347-355.

Harris, R. A., Qualter, P., & Robinson, S. J. (2013). Loneliness

trajectories from middle childhood to pre-adolescence: Impact on perceived health and sleep disturbance. *Journal of Adolescence. 36*, 1295-1304.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12.009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artup, W. W., & Moore, S.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1-18.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2-I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https://doi.org/10.1037/0033-2909.121.3.355

Hayes, S., Carlyle, M., Haslam, S. A., Haslam, C., & Dingle, G. (2022). Exploring links between social identity, emotion regulation, and loneliness in those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 701-734. https://doi.org/10.1111/bjc.12358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https://doi.org/10.1037/0033-295X.94.3.319

Ho, T. T. Q., & Nguyen, H. T. (2022). Self-disclosure on social networking sites,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 victimiz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https://doi.org/10.1080/17405629.2022.2068523

Howe, N., Aquan-Assee, J., Bukowski, W. M., Rinaldi, C. M., & Lehoux, P. M. (2000). Sibling self-disclosure in early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4), 653-671.

Howell, A., & Conway, M. (1990). Perceived intimacy of expressed emo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4), 467-476. https://doi.org/10.1080/00224545.1990.9924608

Hoza, B. Bukowski, W. M., & Beery, S. (2000). Assessing peer network and dyadic lonelin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119-128.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901_12

Huang, C. L., & Yang, S. C. (2013). A study of online misrepresentation, self-disclousre, cyber-relationship motives, and loneliness among teenagers in Taiwan.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48*(1), 1-18. https://doi.org/10.2190/EC.48.1.a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Hutten, E., Jongen, E. M. M., Verboon, P., Bos, A. E. R., Smeekens, S., & Cillessen, A. H. N. (2021). Trajectories of lonelines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Frontiers in Psychology, 12*(689913), 1-9. https://doi.org/10.3389/fpsyg.2021.689913

Hymel, S., Closson, L. M., Caravita, S. C. S., & Vaillancourt, T. (2011). Social status among peers: From sociometric attraction to peer acceptance to perceived popularity. In P. K. Smith, & C. H. Hart (Eds.),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375-392). Wiley.

Imai, T. (2017). How you see us hurts me! Influences of metastereotyp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hold on their self-disclousre, lonel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rach, 46*(4), 385-399. https://

doi.org/10.1080/17475759.2017.1361463

Jobe-Shields, L., Cohen, R., & Parra, G. R. (2011).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loneliness: Trajectories from third through fifth grades. *Merrill-Palmer Quarterly, 57*(1), 25-47.

Jones, W. H., Freemon, J. E., & Goswick (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Personality, 49*(1), 27-48. https://doi.org/10.1111/j.1467-6494.1981.tb00844.x

Karsay, K., Schmuck, D., Matthes, J., & Stevic, A. (2019). Longitudinal effects of excessive smartphone use on stress and lonelinss: The moderating role of self-disclosur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2(11), 706-713. https://doi.org/10.1089/cyber.2019.0255

Kingery, J. N., Erdley, C. A., & Marshall, K. C. (2011).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3), 215-243. https://doi.org/10.1353/mpq.2011.0012

Knop, K., Oncu, J. S., Penzel, J., Abele, T. S., Brunner, T., Vorderer, P., & Wessler, H. (2016). Offline time is quality time. Comparing within-group self-disclosure in mobile messaging applications and face-to-face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5*, 1076-1084. https://doi.org/10.1016/j.chb.2015.11.004

Kochenderfer-Ladd, B., & Wardrop, J. L. (2001). Chronicity and instability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social satisfaction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34-151. https://doi.org/10.1111/1467-8624.00270

Lasgaard, M., Goossens, L., Bramsen, R.H., Trillingsgaard, T., &

Elklit, A. (2011). Different sources of lonelines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forms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233 - 237. https://doi.org/10.1016/j.jrp.2010.12.005

Lee, K.-T., Noh, M.-J., & Koo, D.-M. (2013). Lonely people are no longer lonely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6), 413-418. https://doi.org/10.1089/cyber.2012.0553

Lempinen, L., Junttila, N., & Sourander, A. (2018). Loneliness and friendships among eight-year-old children: time-trends over a 24-year period.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9*(2), 171-179. https://doi.org/10.1111/jcpp.12807

Li, L. M. W., Chen, Q., Hao, H., Li, W., & Ito, K. (2021). Online/offline self-disclousre to offline friends and relational outcomes in a diary study: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and relational clos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1), https://doi.org/10.1002/ijop.12684

Lodder, G. M. A., Scholte, R. H. J., Goossens, L., & Verhagen, M. (2017). Loneliness in early adolescence: Friendship quantity, friendship quality, and dyadic processe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6(5), 709-720. https://doi.org/10.1080/15374416.2015.1070352

Lyyra N., Välimaa, R., Tynjälä, J. (2018). Loneliness and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among school-aged childre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6(20), 87-93. https://doi.org/10.1177/1403494817743901

Maes, M., Klimstra, T., Van den Noortgate, W., & Goossens, L. (2015).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a

multidimensional loneliness scale: Comparisons across gender and ag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6), 1829-1837. https://doi.org/10.1007/s10826-014-9986-4

Mahon, N. E., Yarcheski, A., Yarcheski, T. J., Cannella, B. L., Hanks, M. M. (2006).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for loneliness during adolescence. *Nursing research, 55*(5), 308-315. https://doi.org/10.1097/00006199-200609000-00003

Marangoni & Ickes (1989). Loneliness: A theoretical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1), 93-128. https://doi.org/10.1177/026540758900600107

Maresky, L., Ellis, W., Chen, X., & Zarbatany, L. (2021). The Implications of Social Status on Well-being in Adolescence. *Western Undergraduate Psychology Journal, 9*(1). 1-19.

Matsushima, R., & Shiomi, K. (2001). The effect of hesitancy toward and the motivation for self-disclosure on loneliness among Jap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9*(7), 661-670. https://doi.org/10.2224/sbp.2001.29.7.661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Wiley.

Mouratidis, A. A., & Sideridis, G. D. (2009). On social achievement goals: Their relations with peer acceptance, classroom belongingness, and perceptions of lonelines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7*(3), 285-308. https://doi.org/10.3200/JEXE.77.3.285-308

Musetti, A., & Corsano, P. (2021). Multidimensional self-esteem and secrecy from friends during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Current Psychology, 40*, 2381-2389. https://doi.org/10.1007/s12144-019-00180-6

Nangle, D. W., Erdlev, C. A., Newman, J. E., Mason, C. A., & Carpenter, E. M. (2003). Popularity, friendship quantity, and friendship quality: Interactive influences on children's lonel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4), 546-55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204_7

Nguyen, M., Bin, Y. S., & Campbell, A. (2012). Comparing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usre: A systematic review.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103-111. https://doi.org/10.1089/cyner.2011.0277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In A. D. Beck, F. Casas, M. Sadurni, & G. Coenders (Eds.) *Quality of life research on children and adolescence* (pp. 35-60). Springer

Ojiambo, D., & Taylo, L., (2015). The extraordinary 10-year-old. In D. C. Ray (Ed.), *A therapist's guide to child development* (pp. 136-151). Routledge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https://doi.org/10.1037/0012-1649.29.4.611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95-131). Wiley.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9). Developmental change in the

source of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onstructing a theoretical model. In K. J. Rotenberg & S. Hymel (Ed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56-79).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rlman & Peplau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In R. Gilmour, & S. Duck (Eds.),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pp. 31-56). Academic Press.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https://doi.org/10.1037/0021-9010.88.5.879

Qualter, P., & Brown, S. L., Munn, P., & Rotenberg, K. J. (2010). Childhood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 8-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6), 493-501. https://doi.org/10.1007/s00787-009-0059-y

Qualter, P., & Munn, P. (2002). The separateness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2), 233-244. https://doi.org/10.1111/1469-7610.00016

Qualter, P., Rotenberg, K., Barrett, L., Henzi, P., Barlow, A., Stylianou, M., & Harris, R. A. (2013). Investigating hypervigilance for social threat of lonely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2), 325-338. https://doi.org/10.1007/s10802-012-9676-x

Qualter, P., Vanhalst, J., Harris, R., Roekel, E. V., Lodder, G., Bangee, M., Maes, M., & Verhagen, M. (2015). Loneliness across the life spa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50-264. https://doi.org/10.1177/1745691615568999

Renshaw, P. D., & Brown, P. J. (1993).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Concurrent and longitudinal predictors. *Child Development, 64*(4), 1271-1284.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3.tb04200.x

Rogers, C. R. (1970). *Encounter groups*. Harper & Row.

Rose, A. J. (2002). Co-rumination in the friendships of girls and boys. *Child Development, 73*(6), 1830-1843. https://doi.org/10.1111/1467-8624.00509.

Rosen, S., & Tesser, A. (197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reluctance to transmit bad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2*(2), 124-141. https://doi.org/10.1111/j.1460-2466.1972.tb00140.x

Rubin, K. H., Bukowski, W. M.,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71-645). Wiley.

Rubin, K. H., Bukowski, W. M., & Bowker, J. C. (2015). Children in peer groups. In M. H. Bornstein, T. Leventhal,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Ecological settings and processes* (pp.175-222). Wiley.

Ruppel, E. K. (2015).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romantic relationships: Self-disclousr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2*(5), 667-686. https://doi.org/10.1177/0265407514541075

Russell, D. W., Cutrona, C. E., McRae, C., & Gomez, M. (2012). Is loneliness the same as being alone?. *The Journal of Psychology, 146*(1-2), 7-22. https://doi.org/10.1080/00223980.2011.589414

Salo, A. Junttila, N., & Vauras, M. (2019).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Longitudinal sta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boys and girls. *Family Relations, 69*, 151-165. https://doi.org/10.1111/fare.12398

Schinka, K. C., van Dulmen, M. H. M., Mata, A. D., Bossarte, R., & Swahn, M. (2013). Psychosocial predictors and outcomes of loneliness trajectories from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6*, 1251-1260.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3.08.002

Schwartz-Mette, R. A., Shankman, J., Dueweke, A. R., Borowski, S., & Rose, A. J. (2020). Relations of friendship experience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8), 664-700. https://doi.org/10.1037/bul0000239

Schwab, S. H., Ginter, E. J., Scalise, J. J., & Whipple, G. (1998).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four interpersonal targets: Friend, group of friends, stranger, and group of strangers. *Psychological reports, 82*, 1264-1266. https://doi.org/10.2466/pr0.1998.82.3c.1264

Selman(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cademic Press.

Sermat, V., & Smyth, M. (1973). Content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 Conditions influencing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3), 332-346. https://doi.org/10.1037/h0034473

Shapiro, J. G. (1968). Variability in the communication of affec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6*(2), 181-188. https://doi.org/10.1080/00224545.1968.9933611

Shaver, P., & Buhrmester, D. (1983). Loneliness, sex-role orientation and group life: A social needs perspective. In P. B. Paulus (Ed.), *Basic group processes* (pp. 259-288). Springer.

Shin, Y. (2007). Peer Relationships, Social Behaviours, Academic Performance and Loneliness in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2), 220-236. https://doi.org/10.1177/0143034307078103

Solano, C. H., Baten, P. G., & Parish, E. A. (1982) Lonelines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24-531. https://doi.org/10.1037//0022-3514.43.3.524

Song, Q., Koh, J., & Wang, Q. (2018).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peer experiences in cultural contexts: The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2037-2048. https://doi.org/10.1007/s10826-018-1033-4

Stein, J. Y., & Tuval-Mashiach, R. (2015). The social construction of loneliness: An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8*(3), 210-227. https://doi.org/10.1080/10720537.2014.911129

Sterba, S. K. (2013). Understanding linkages among mix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6), 775-815, http://doi.org/10.1080/00273171.2013.827564

Strokes, J. P. (1987). The relation of loneliness and self-disclosure. In V. J. Derlega, & J. H. Berg (Eds.), *Self-disclosure* (pp.175-202). Plenum press.

Tolstedt, B. E., & Stokes, J. P. (1984). Self-disclosure, intimacy, and the depenetr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1), 84-90. https://doi.org/10.1037/0022-3514.46.1.

84

Towner, E., Grint, J., Levy, T., Blakemore, S., & Tomova, L. (2022). Revealing the self in a digital world: A systematic review of adolescent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sur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5*, 101309. https://doi.org/10.1016/j.copsyc.2022.101309

Twenge, J. M., Spitzberg, B. H., Campbell, W. K. (2019). Less in-person social interaction with peers among U.S. adolescents in the 21st century and links to lonelin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6), https://doi.org/10.1177/0265407519836170

Valkenburg, P. M., Sumter, S. R., & Peter,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usre in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53-269. https://doi.org/10.1348/2044-835X.002001

Vanhalst, J., Luyckx, K., & Goossens, L. (2014). Experiencing loneliness in adolescence: A matter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negative peer experiences, or both?. *Social Development, 23*(1), 100-118. https://doi.org/10.1111/sode.12019

Vanhalst, J., Luyckx, K., Scholte, R. H. J., Engels, R., & Goossens L. (2013). Low self-esteem as a risk factor for loneliness in adolescence: Perceived - but not actual - social acceptance as an underly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1067-1081. https://doi.org/10.1007/s10802-013-9751-y

Wang, G., Zhang, W., Chen, Q., & Zeng, R. (2018). How is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online self-disclosure in China's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 60-66. https://doi.org/10.1016/j.paid.2018.07.002

Weeks, M. S., & Asher, S. R. (2012). Loneliness in childhood: Toward the next generation of assessment and research.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42*, 1-39. https://doi.org/10.1016/b978-0-12-394388-0.00001-0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https://doi.org/10.1037/0022-0167.52.4.602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Wheeless, L. R. (1976).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solidarity: Measurement, validation, and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 47-61. https://doi.org/10.1111/j.1468-2958.1976.tb00503.x

Wheeless, L. R. (1978). A follow-up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rust, disclosure, and interpersonal solidarity. *Human Communication Reserach, 4*(2), 143-157. https://doi.org/10.1111/j.1468-2958.1978.tb00604.x

Wheeless, L. R., & Grotz, J. (1976).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reported self-disclosur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4), 338-346. https://doi.org/10.1111/j.1468-2958.1976.tb00494.x

부 록

<부록 1> 설문 문항
<부록 2>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록 3> 공분산분석 결과
<부록 4> 유형별 대면, 비대면 자기노출의 특성
<부록 5> 모형 4, 모형 5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록 1> 설문 문항

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표 부록-1> 집단관계 외로움과 양자관계 외로움 문항 번호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집단관계 외로움	8	1, 3, 5, 7, 9, 11, 13, 15
양자관계 외로움	8	2, 4, 6, 8, 10, 12, 14, 16, 18

① 나는 친구들과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
②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 *
③ 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거의 대부분 소외감을 느낀다.
④ 나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
⑤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⑥ 나는 내 속마음을 신경 써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내가 우리 친구들 집단의 진정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
⑧ 나는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⑨ 나는 종종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평소 생활이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친구가 없다.
⑪ 나는 대개 무엇인가를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
⑫ 나는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있다. *
⑬ 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⑭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다. *
⑮ 나는 많이 외롭고, 친구들이 나와 좀 더 많이 함께해주면 좋겠다.
⑯ 나는 나를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표시는 역채점 문항

2. 또래 수용도

①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
② 나는 친구가 많다.
③ 나는 친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④ 나는 언제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⑤ 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 *
⑥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 표시는 역채점 문항

3. 친한 친구 수

여러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이름을 모두 적어주세요.
[ ]

4. 단짝관계 질

<표 부록-2> 단짝관계 질 하위요인별 문항 번호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신의	4	1, 2, 4, 5
갈등 해결	2	8, 11
도움	5	6, 9, 10, 12, 13
어울리기	2	3, 7

① 친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말해준다.
②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대한다.
③ 우리는 둘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서로를 파트너로 선택한다.
④ 친구는 내가 꽤 똑똑하다고 말해준다.
⑤ 친구는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대해준다.
⑥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해준다.
⑦ 우리는 쉬는 시간에 항상 같이 논다.
⑧ 우리는 싸우더라도 쉽게 화해한다.
⑨ 친구는 어떤 일을 할 때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⑩ 친구는 내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⑪ 우리는 말다툼을 하더라도 빠르게 넘어간다.
⑫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다.
⑬ 우리는 숙제할 때 서로 도와준다.

5. 자기노출

<표 부록-3> 자기노출 특성별 문항 번호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풍부성	3	1, 2, 3
정확성	3	11, 12, 13
개방성	2	9, 10
긍정성	5	4, 5, 6, 7, 8

① 나는 내 기분을 말할 때 대부분 간단히 말한다. *
② 내 자신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대화를 짧게 한다. *
③ 나는 종종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④ 나는 나의 긍정적인 면을 잘 드러낸다.
⑤ 나는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드러낸다. *
⑥ 나는 종종 나의 바람직한 모습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낸다. *
⑦ 나는 자주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
⑧ 전체적으로, 나는 나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드러낸다.
⑨ 나는 종종 망설임 없이 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공개한다.
⑩ 나에 대하여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친밀하게 보여준다.
⑪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 말이나 행동은 온전한 나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
⑫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항상 솔직한 것은 아니다. *
⑬ 나는 내 감정, 생각, 행동, 경험 등에 관하여 얘기할 때마다 항상 진심인 것은 아니다. *

* 표시는 역채점 문항

6. 성격

<표 부록-4> 성격 하위요인별 문항 번호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성실성	4	1, 2, 3, 4
정서적 안정성	4	5, 6, 7, 8
우호성	4	9, 10, 11, 12
외향성	4	13, 14, 15, 16
유연성	2	17, 18

①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②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③ 나는 많은 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④ 나는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잘 해야 한다.
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줄 몰라한다.*
⑥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⑦ 나는 일이 잘못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곤 한다.*
⑧ 나는 놀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 받는다.*
⑨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⑩ 나는 사려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⑪ 나는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준다.
⑫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⑬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⑭ 나는 생각과 느낌을 혼자 간직하기를 좋아한다.*
⑮ 나는 나를 남에게 편하게 드러내기가 힘들다.*
⑯ 나는 말이 많다.
⑰ 나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창의적이다.
⑱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표시는 역채점 문항

<부록 2>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부록-5> 모형 A-1, 모형 A-2, 모형 A-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집단관계 외로움					
	모형 A-1		모형 A-2		모형 A-3	
	B	β	B	β	B	β
절편	4.25***		4.74***		5.90***	
성별	-.07	-.06	-.07	-.06	-.05	-.04
양부모 동거	-.43***	-.16	-.24**	-.09	-.21*	-.08
성실성	-.19***	-.18	-.09*	-.09	-.08	-.07
정서적 안정성	-.10**	-.12	-.03	-.03	-.04	-.04
우호성	-.25***	-.22	-.15**	-.13	-.17***	-.15
외향성	-.07	-.07	-.01	-.01	-.01	-.01
또래 수용도			-.41***	-.41	-1.38***	-1.40
친한 친구 수			-.02**	-.12	-.02**	-.11
단짝관계 질			-.15**	-.12	-.16***	-.13
또래 수용도 제곱 항					.19***	.99
R^2	.16		.38		.39	
수정된 R^2	.15		.37		.38	
R^2 변화			.22***		.01***	
$F(df)$	16.34(6, 507)***		33.86(9, 504)***		32.65(10, 503)***	

$^{*}p < .05$, $^{**}p < .01$, $^{***}p < .001$

<표 부록-6> 모형 B-1, 모형 B-2, 모형 B-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양자관계 외로움					
	모형 B-1		모형 B-2		모형 B-3	
	B	β	B	β	B	β
절편	4.60***		5.56***		4.61***	
성별	-.19***	-.16	-.12**	-.10	-.09*	-.08
양부모 동거	-.36***	-.14	-.17	-.07	-.12	-.05
성실성	-.21***	-.20	-.15***	-.14	-.11**	-.10
정서적 안정성	-.06	-.08	-.01	-.01	-.01	-.01
우호성	-.19***	-.17	.00	.00	-.03	-.03
외향성	-.12**	-.12	-.08*	-.08	-.07*	-.07
유연성	-.09**	-.11	-.10**	-.11	-.08**	-.10
또래 수용도			-.26***	-.26	-1.34***	-1.35
단짝관계 질			-.49***	-.42	.95**	.81
또래 수용도 제곱항					.22***	1.11
단짝관계 질 제곱항					-.24***	-1.25
R^2	.20		.44		.47	
수정된 R^2	.19		.43		.46	
R^2 변화			.24***		.03***	
$F(df)$	18.17(7, 506)***		44.06(9, 504)***		40.69(11, 502)***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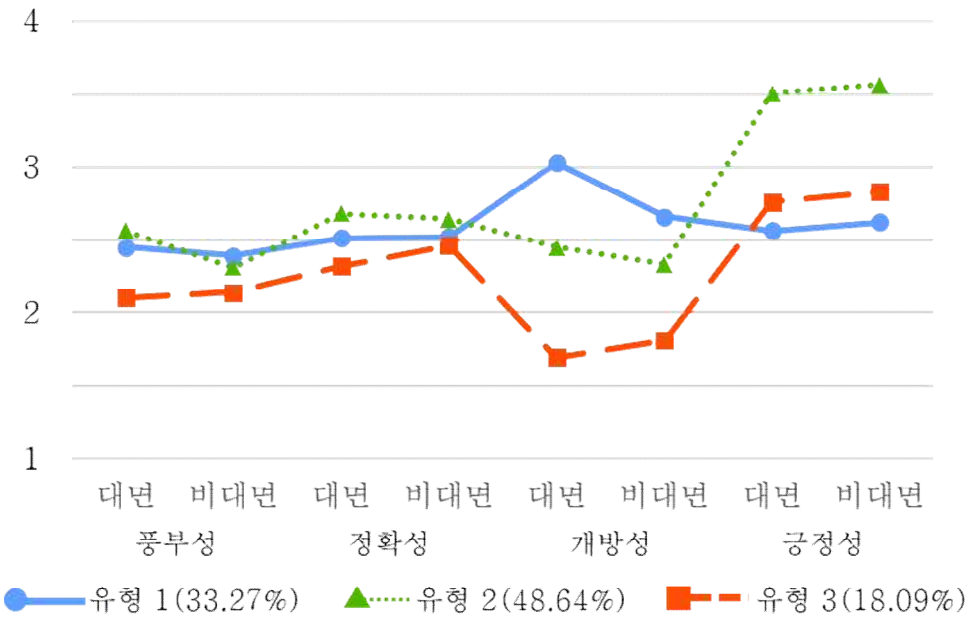
집단관계 외로움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소유 여부, 형제자매 수, 유연성을 포함한 모형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22, p>.05). 이 연구는 모형의 간명성과 F 검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스마트폰 소유 여부, 형제자매 수, 유연성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모형 A-1로 설정하였다.

모형 A-2에서 또래 수용도, 친한 친구 수,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수의 제곱항을 하나씩 추가했을 때, 또래 수용도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으며, 친한 친구 수 제곱항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친한 친구 수 제곱항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41, p>.05). 이 연구는 모형의 간명성과 F 검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친한 친구 수 제곱항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모형 A-3로 설정하였다.

한편, 양자관계 외로움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소유 여부, 형제자매 수를 포함한 모형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65, p>.05). 이 연구는 모형의 간명성과 F 검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스마트폰 소유 여부, 형제자매 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모형 B-1로 설정하였다.

모형 B-2에서 또래 수용도, 단짝관계 질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수의 제곱항을 하나씩 투입했을 때, 또래 수용도 제곱항과 단짝관계 질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으며, 친한 친구 수 제곱항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친한 친구 수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01, p>.05). 이 연구는 모형의 간명성과 F 검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친한 친구 수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모형 B-3로 설정하였다.

<부록 3> 유형별 대면, 비대면 자기노출의 특성



<그림 부록-1> 유형별 대면, 비대면 자기노출 특성

<표 부록-7> 유형별 대면, 비대면 자기노출 특성

	유형 1	유형 2	유형 3	*F*(*df*)
대면 풍부성	2.45 ^{b}	2.56 ^{b}	2.10 ^{a}	25.83(2)***
비대면 풍부성	2.39 ^{b}	2.31 ^{b}	2.14 ^{a}	6.36(2)**
대면 정확성	2.51 ^{b}	2.68 ^{c}	2.32 ^{a}	15.31(2)***
비대면 정확성	2.52 ^{ab}	2.64 ^{b}	2.46 ^{a}	4.30(2)*
대면 개방성	3.03 ^{c}	2.45 ^{b}	1.69 ^{a}	139.37(2)***
비대면 개방성	2.66 ^{c}	2.33 ^{b}	1.81 ^{a}	55.70(2)***
대면 긍정성	2.56 ^{a}	3.51 ^{c}	2.76 ^{b}	527.40(2)***
비대면 긍정성	2.62 ^{a}	3.57 ^{c}	2.83 ^{b}	396.36(2)***

$^{***}p < .001$

<부록 4> 공분산분석 결과

<표 부록-8> 집단관계 외로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수	제곱합	자유도	F
절편	44.88	1	204.47***
성별	.09	1	.43
스마트폰 소유 여부	.25	1	1.15
양부모 동거 여부	2.58	1	11.76***
형제자매 수	.17	1	.76
성실성	6.75	1	30.73***
정서적 안정성	.36	1	1.66
우호성	.60	1	2.71
외향성	2.63	1	11.99***
유연성	.00	1	.02
자기노출 유형	39.51	2	90.01***
오차	110.18	502	

***$p < .001$

<표 부록-9> 양자관계 외로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수	제곱합	자유도	F
절편	64.70	1	252.14^{***}
성별	3.54	1	13.81^{***}
스마트폰 소유 여부	.56	1	2.19
양부모 동거 여부	2.01	1	7.82^{**}
형제자매 수	.57	1	2.22
성실성	6.43	1	25.05^{***}
정서적 안정성	.11	1	.44
우호성	.04	1	.15
외향성	2.72	1	10.60^{**}
유연성	2.36	1	9.20^{**}
자기노출 유형	15.34	2	29.88^{***}
오차	128.82	502	

$^{**}p < .01$, $^{***}p < .001$

<부록 5> 모형 4, 모형 5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부록-10> 모형 A-4, 모형 A-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A-4		모형 A-5	
	B	β	B	β
절편	5.06***		2.87***	
성별	-.02	-.02	-.04	-.03
양부모 동거	-.17*	-.06	-.17*	-.07
성실성	-.14***	-.14	-.14***	-.13
정서적 안정성	-.01	-.01	-.00	-.00
우호성	.05	.04	.03	.03
외향성	-.06	-.06	-.04	-.04
또래 수용도(A)	-1.25***	-1.27	.56	.56
또래 수용도 제곱항(A2)	.19***	.97	-.19*	-.96
친한 친구 수	-.02***	-.11	-.02**	-.10
단짝관계 질	-.08*	-.07	-.04	-.04
꾸밈형(D2)	-.45***	.38	2.77***	2.34
소극형(D3)	.12*	.08	2.31**	1.51
A*D2			-2.81***	-7.01
A2*D2			.57***	4.53
A*D3			-1.95**	-3.09
A2*D3			.41**	1.76
R^2	.51		.53	
수정된 R^2	.50		.52	
R^2 변화	.12***		.02***	
$F(df)$	43.04(12, 501)***		35.47(16, 497)***	

*$p < .05$, **$p < .01$, ***$p < .001$

주)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부록-11> 모형 B-4, 모형 B-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4		모형 B-5	
	B	β	B	β
절편	4.49***		2.77***	
성별	-.08*	-.07	-.09*	-.07
양부모 동거	-10	-.04	-.13	-.05
성실성	-.13**	-.12	-.14***	-.13
정서적 안정성	-.01	-.01	-.01	-.01
우호성	.05	.04	.04	.03
외향성	-.07*	-.07	-.01	-.01
유연성	-.08**	-.09	-.10***	-.12
또래 수용도(A)	-1.23***	-1.24	1.29**	1.30
또래 수용도 제곱항(A2)	.20***	1.04	-.31**	-1.56
단짝관계 질(B)	.75*	.63	-.48	-.41
단짝관계 질 제곱항(B2)	-.21***	-1.06	.06	.30
꾸밈형(D2)	-.10*	-.08	4.17**	3.52
소극형(D3)	.15**	.10	-1.00	-.64
A*D2			-2.95***	-7.34
A2*D2			.58***	4.57
A*D3			-3.61***	-5.70
A2*D3			.74**	3.19
B*D2			.15	.44
B2*D2			-.12	-1.19
B*D3			4.01*	8.06
B2*D3			-.73*	-4.73
R^2	.49		.54	
수정된 R^2	.48		.52	
R^2 변화	.02***		.05***	
$F(df)$	36.71(13, 500)***		27.55(21, 492)***	

$^{*}p < .05$, $^{**}p < .01$, $^{***}p < .001$

주) 자기노출 유형은 솔직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 Interac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Kim, Daewooong

Dep.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and self-disclosure in loneliness during middle childhood. This study (a) explored the linear and curvilinear associations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b) categorized the patterns of self-disclosure and compared relationships between those patterns and loneliness, and (c) examined the self-disclosure pattern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The participants were 514 children in 4th grade recruited from 7 elementary schools in Seoul, South Korea. The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er relationships, self-disclosure and loneline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R (4.2.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e in three children felt above moderate level of loneliness. Girls were more likely than boys

to have feelings of loneliness, and children living with a single parent felt lonely more than children living with two parents. Agreeableness, emotional stability,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oneliness.

Second, while peer network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was linearly associated with number of friends and best friendship quality, a curvilinear association were observed between the peer network loneliness and peer acceptance. Children with low levels of peer acceptance, small number of friends, and low levels of best friendship quality were more likely to feel peer network loneliness. However,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peer acceptance tended to report more peer network loneliness than those with moderate levels of peer acceptance.

Meanwhile, peer dyadic loneliness had a significant curvilinear association with peer acceptance, and best friendship quality. Children with low levels of peer acceptance and low levels of best friendship quality were more likely to feel peer dyadic loneliness. However,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peer acceptance tended to report more peer dyadic loneliness than those with moderate levels of peer acceptance. The low levels of best friendship children were comparable in dyadic loneliness to the moderate levels of best friendship children.

Third, self-disclosure patterns in middle childhood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straightforward group was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depth, and moderate levels of amount, accuracy, and positiveness. The devious group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positiveness, and moderate levels of amount, accuracy, and depth. The passive group was characterized by low levels of amount and depth, moderate levels of accuracy, and slightly high levels of positiveness. The passive group tended to feel be lonelier than the other two

patterns of children, and the devious group tended to feel less lonely than the other two patterns of children.

The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differed by self-disclosure patterns. The devious group and the passive group with high peer acceptance tended to report more peer network loneliness and peer dyadic loneliness compared to those with moderate peer acceptance, while the straightforward group did not. Also, in all three self-disclosure profiles, children with low best friendship quality were more likely to feel peer dyadic loneliness, but the degree of association of two variables between the three profiles was different. The straightforward group reported the lowest association between best friendship quality and peer dyadic loneliness among three patterns.

In sum, this study examined the linear and curvilinear associations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Moreover, children's self-disclosure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patterns; straightforward, devious, and passive. Loneliness of children differed by those self-disclosure patterns.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patterns of self-disclosure were a moderato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loneliness could be felt not only by children with low peer acceptance and low best friendship quality. These findings broached the necessity of differential intervention plans based on each self-disclosure patterns to alleviate children's loneliness.

keywords : peer network loneliness, peer dyadic lonelines, peer acceptance, number of friends, best friendship quality, self-disclosure

Student Number : 2018-30893